

농업·농촌경제 동향 : 2001년 8월

2001년 9월 1일

< 목 차 >

I.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동향

II. 농업·농촌경제 변화 동향

III. 지역 언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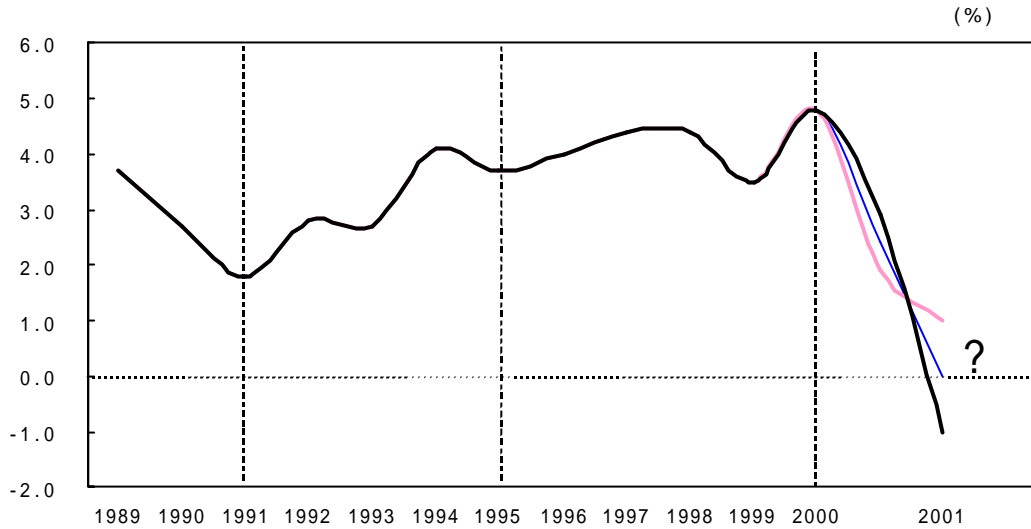
IV. 이 달의 집중분석: 고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동향

1. 세계 경제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연평균 성장률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세계경제 올해 2/4분기 2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예상)** 2001년 상반기 중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부진과 일본의 경기침체 심화, 그리고 유로지역의 성장세 둔화 여파가 아시아 남미로 파급되면서 1/4분기 1.4%, 2/4분기에는 2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분기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독일, 일본의 2/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또는 0 수준 예상
- **(우리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듯)**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수요 둔화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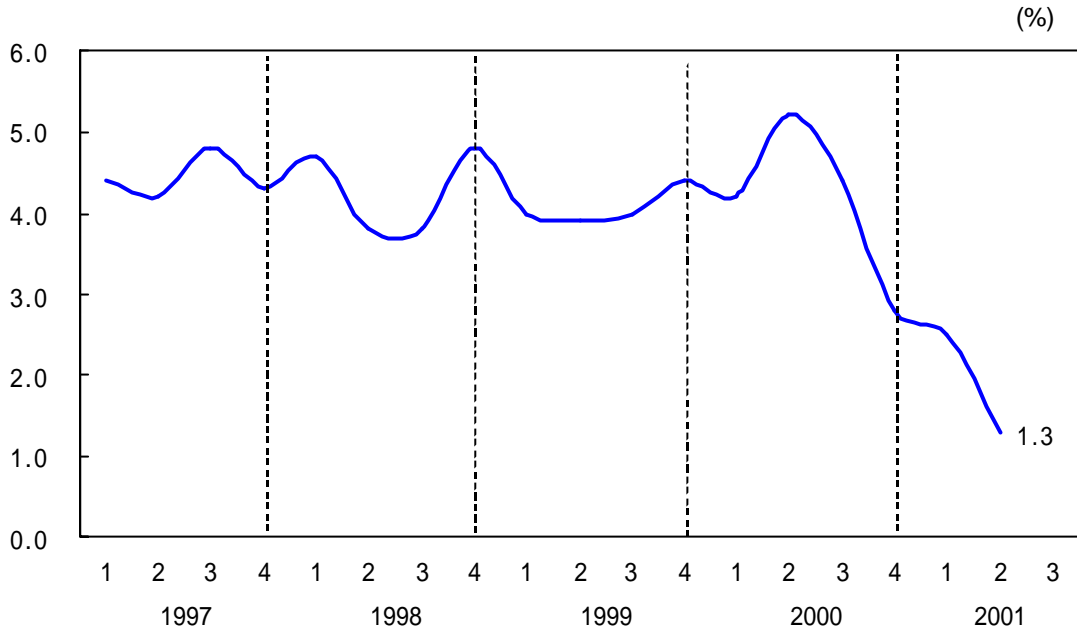
<수출의 지역별 점유율>

단위: %

	1999	2000	2001		
			상반기	6월	7월
대 선진국	50.7	51.4	48.5	48.0	49.3
미국	20.5	21.8	19.9	20.5	21.3
EU	14.1	13.6	13.2	12.3	13.3
일본	10.9	11.9	11.6	11.4	11.0
대 개도국	49.3	48.6	51.5	52.0	50.7
동남아	23.0	22.6	21.1	20.4	21.1
중국	9.5	10.7	11.6	12.7	13.4
중남미	6.0	5.4	7.0	7.7	5.0

□ 미 국

<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 **(미국경제의 성장률 급락 우려)** 미국경제는 2000년 3/4분기 이후 하강국면을 맞고 있으나, 연간으로 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2001년에도 3% 이상의 성장으로 연착륙 전망이 우세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 제조업 부진, 고용불안,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1~2%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4분기 성장률 1.3%)**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 성장으로 잠정 발표되었으나, 확정치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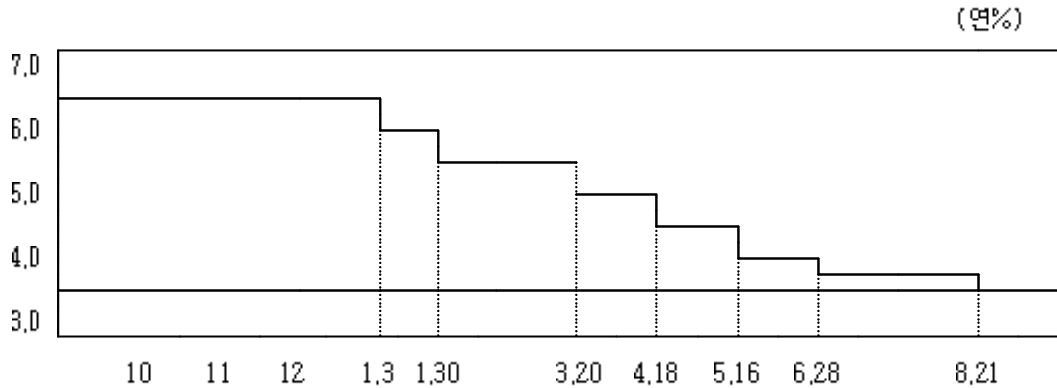
< 미국 GDP 및 산업생산 변화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단위: (%)

	비중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GDP		4.1	4.2	5.2	4.4	2.8	2.5	1.3
산업생산 ¹⁾		5.6	1.6	1.9	0.9	-0.2	-1.8	-1.4
(IT)	8.5	(53.6)	(14.8)	(14.3)	(11.9)	(5.8)	(-1.6)	(-5.2)
(IT이외)	91.5	(1.7)	(0.4)	(0.7)	(-0.2)	(-0.9)	(-1.8)	(-1.1)

주 1) 전분기대비 증감율(연율)

< 연준금리 변화추이: 2000.10~2001.8 >



< 연준금리 변화추이 >

단위: 연(%)

2000년			2001년									
10월	11월	12월	1월	1.31	2월	3.20	4.18	5.16	6.28	7월	8.21	
6.5	6.5	6.5	6.0	5.5	5.5	5.0	4.5	4.0	3.75	3.75	3.5	

- **(미연준 7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미국경제가 침체기미를 나타내자 미연준(FRB)은 올해 1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올해 들어서만 금리가 3.0%p 인하됨.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주가는 큰 변화가 없고, 채권금리는 연초수준을 유지하자 최근들어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에 의문 제기.
- **(4/4분기중 저점통과 예상)** 향후 미국경기의 회복은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하여 매우 불확실한 상태. 소비자 신뢰도 급감 및 기업수지 악화, 무역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감소폭의 축소, 5개월 연속 재고감소와 함께 세금환급정책,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4/4분기중 저점을 통과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의 주요지표 : 전기대비 증감을 >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경기선행지수	109.9	110.4	110.2	109.8	109.0	108.8	109.2	109.3	109.6	109.3
소비자 신뢰지수	139.0	140.9	140.5	142.1	132.3	114.0	114.6	116.1	118.9	116.5
NAPM 지수	51.6	56.0	53.3	50.4	46.8	42.1	43.3	42.1	44.7	43.6
실업률	4.0	4.1	4.0	4.0	4.0	4.2	4.4	4.4	4.5	4.5

□ 일 본

- **(당초 예상보다 경제부진이 심화)** 장기불황을 겪고있는 일본경제는 1999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00년 3/4분기 이후 다시 하강국면을 맞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경제부진이 더욱 심화,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은 전기대비 0.8%가 감소했으며, 2/4분기에는 하락폭이 더욱 확대 예상(△1.2%)
 - 1/4분기중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신뢰 지수 및 민간설비투자 모두가 부진
 - 2/4분기에는 산업생산 감소폭이 5.7%로 전월 1.1% 보다 더욱 확대
 - 7월 실업률 5.0%로 사상 최고수준
 - 무역수지 흑자는 13개월 연속 하락하여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57.9% 감소
- **(올해 경제성장은 0%대 전망)** 일본경제는 작년 1.7% 성장에 이어 올해 2% 전후의 성장을 예상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가속으로 0%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주요 경지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단위: %

	2000				2001			
	1/4	2/4	3/4	4/4	1/4	2/4	5월	6월
GDP 성장률 ¹⁾	10.0	0.5	△2.7	2.5	△0.8	△1.2	-	-
산업 생산	6.3	7.1	5.5	4.9	△1.1	△5.7	△3.9	△8.7
수출(물량)	13.7	13.3	8.1	3.2	△4.4	△11.1	△9.7	△14.3
소매 판매	△1.9	△2.5	△1.1	△1.4	0.8	△1.8	△1.4	△2.7
실업률	4.8	4.7	4.7	4.8	4.8	4.9	4.9	4.9

주1) 전분기대비 증감율(연율)

□ 유로(Euro)지역

- (최근 들어 경기둔화세 심화) 유로지역 경제는 199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들어서 2001년에도 전년수준의 성장(3% 중반)을 예상하였으나, 독일경제의 부진 및 해외여건의 악화(미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일본경제의 부진)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산업생산은 유로지역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기위축으로 지난 1/4분기 이후 5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6월에 소폭 반등
 - 독일의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3.3%('00 3/4) ⇒ 2.6%('00, 4/4) ⇒ 2.0%('01, 1/4)
 - 독일의 산업신뢰지수(Ifo) 6월 5년만에 최저치 기록
 - 경기체감지수, 구매관리지수(PMI), 독일의 Ifo 경기지수 등도 모두 하락세 지속
- (올해 경제성장은 2% 중반대 전망) EU 집행위는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일본의 경기후퇴 등을 감안하여 유로지역의 올해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

< 유로지역의 주요 경지지표 추이: 전기(월)대비 증감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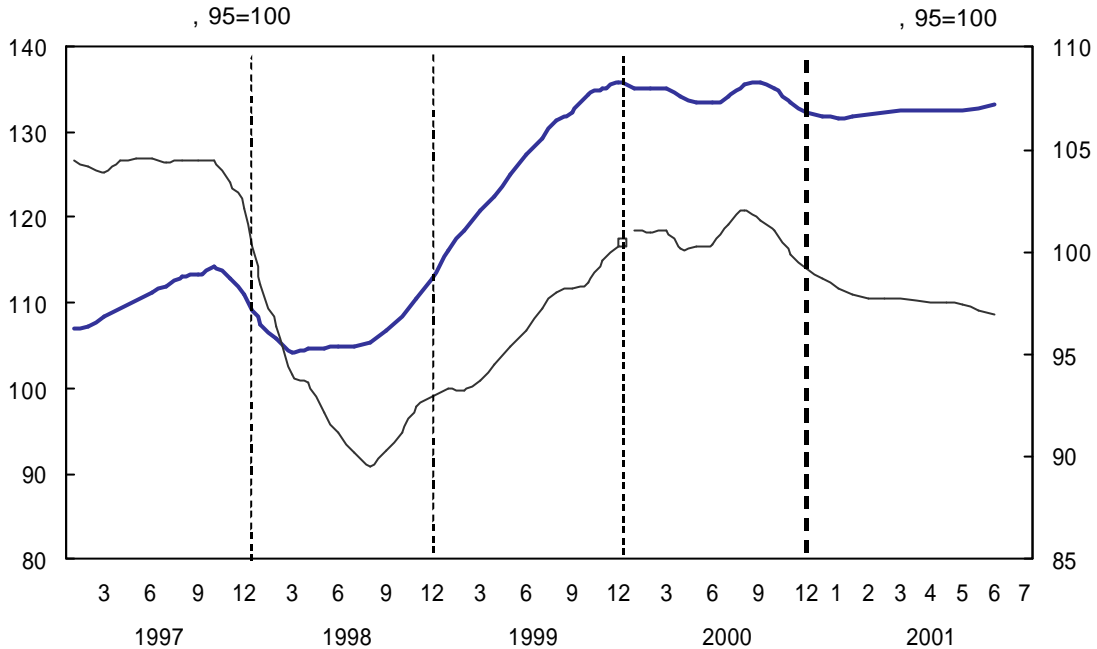
단위: %

		2000				2001			
		1/4	2/4	3/4	4/4	1/4	4월	5월	6월
유 로	GDP성장률 ¹⁾	3.5	3.7	3.3	2.9	2.6	2.0	-	-
	산업생산	1.1	2.4	0.6	1.4	△0.3	△0.9	△0.2	0.6
	경기체감지수	104.3	104.6	104.1	103.4	102.9	101.7	101.8	100.6
	실업율	9.3	8.9	8.7	8.5	8.5	8.3	8.3	8.3
독 일	산업생산	1.6	1.9	1.3	1.4	0.4	△0.3	△1.1	0.8
	Ifo경기지수	100.5	101.2	98.6	96.9	95.4	90.9	90.8	89.5
	실업율	10.1	9.6	9.5	9.3	9.3	7.8	7.8	7.8
프랑스	산업생산	0.2	0.3	1.4	0.4	0.4	△0.2	0.5	0.3
	실업율	10.2	9.8	9.6	9.3	8.8	8.5	8.5	8.5

주1) 전년동기대비

2. 경기 동향

< 경기종합지수 추이 >



< 경기종합지수 변동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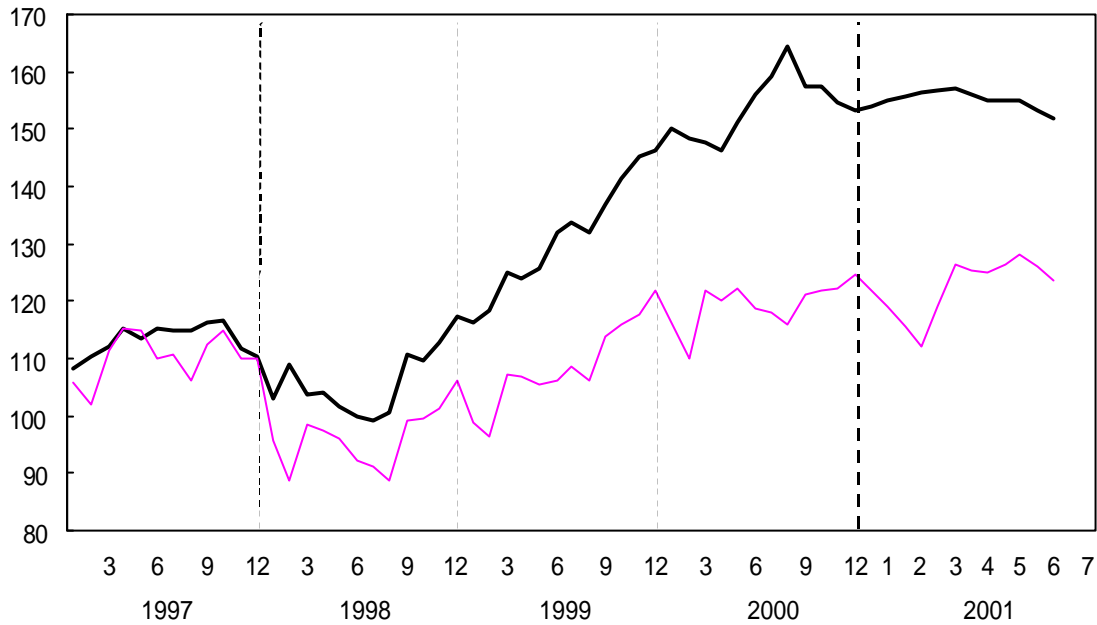
		200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동행지수 ¹⁾	전년동월대비	△2.7	△3.1	△3.1	△2.6	△2.8	△3.4
	전월대비	△1.0	△0.5	0.0	△0.2	△0.2	△0.4
선행지수	전년동월대비	△2.0	△1.8	△1.8	△1.8	△1.6	△0.9
	전월대비	△0.6	0.4	0.2	0.0	0.1	0.4

1)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의미 (통계청)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세 지속)**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6월 전년동월대비 3.4%,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10개월 연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6월 들어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어,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선행지수는 완만한 상승세 유지)**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6월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4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어, 올해 4/4분기중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

3. 산업생산 및 소비동향

<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지수 추이 >



<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 변동율 >

단위 : %, 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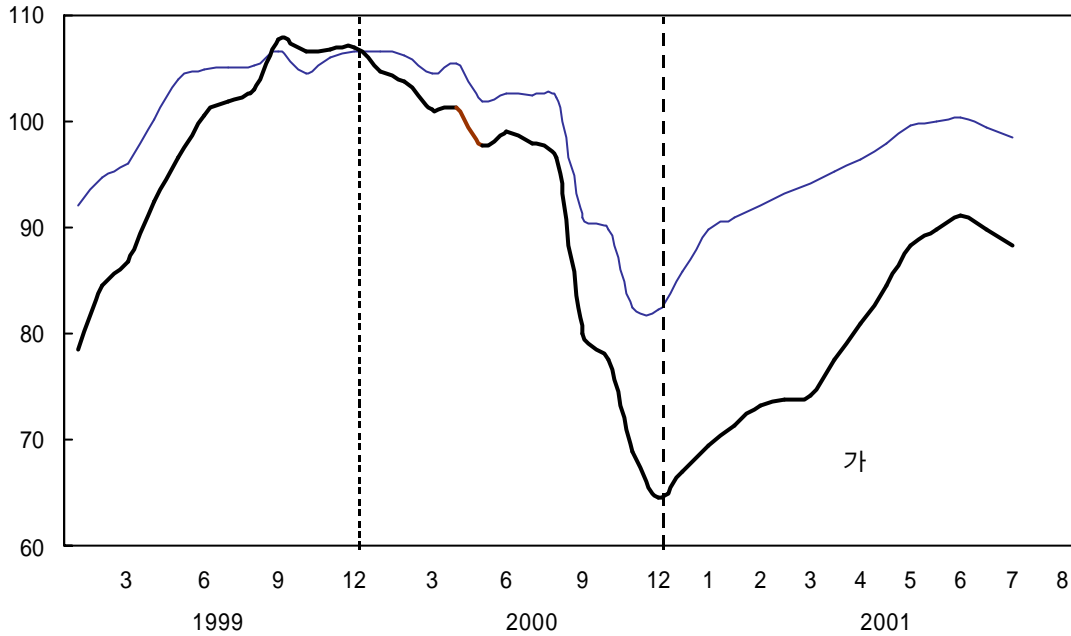
		200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3.3	5.5	6.4	5.9	2.3	△2.6
	전월대비	1.0	0.9	0.4	△1.4	△0.1	△1.9
도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2.2	1.6	3.6	3.6	4.8	4.1
	전월대비	△4.5	△6.0	12.7	△1.0	2.6	△3.6

자료 : 통계청

- **(산업생산 감소세 확대)** 산업생산은 수출이 부진한 반도체의 생산격감 (3.8%→△16.1%)으로 6월에도 전월대비 1.9% 감소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올해들어 처음으로 감소하여(△2.6%), 산업생산활동 매우 저조. 생산감소는 주로 수출부진에 기인.
- **(도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도소매판매는 6월 들어 전월대비 3.6%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1% 증가한 수준.

4. 소비자 소비심리 변화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 소비자 전망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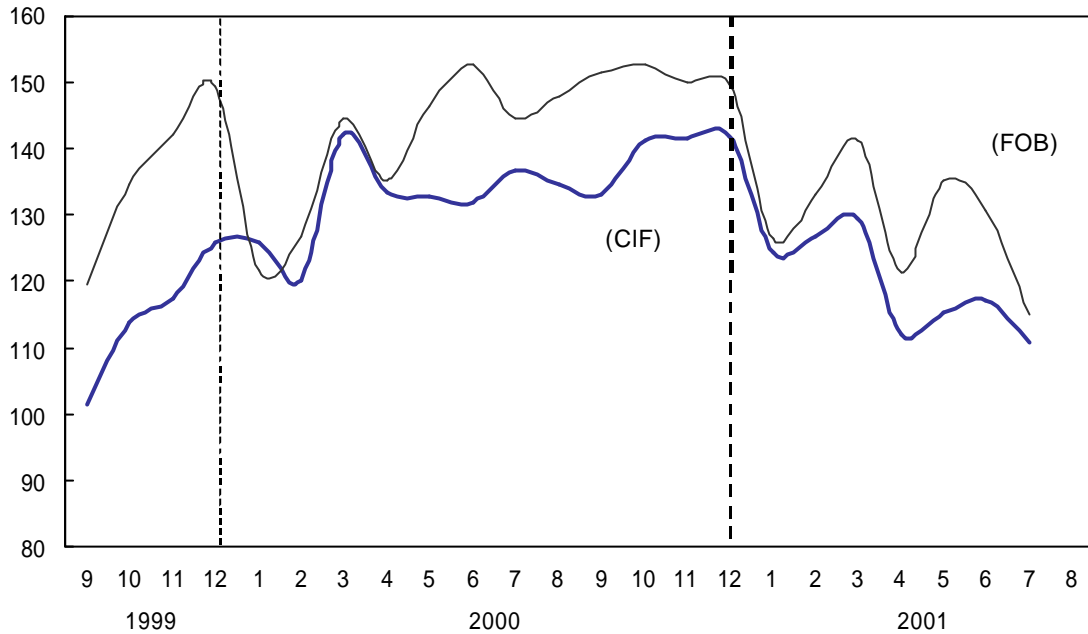
단위 : %

	200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가지수	69.4	73.2	74.1	80.9	88.3	91.1	88.2
기대지수	89.7	92.0	94.1	96.3	99.5	100.3	98.4

자료 : 통계청

- **(소비심리 회복세 주춤)** 소비자 평가지수는 7월, 88.2를 기록하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월대비 2.9%p 하락,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소비심리 회복세가 7월 들어 주춤.
- **(소비기대심리 하락세로 반전)** 소비자 기대지수도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지난 6월 100.3을 기록했으나, 7월 들어 98.4로 다시 하락, 소비기대심리도 하락세로 반전.

5.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동 추이 >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단위: 억달러, 원/\$

	2000년			2001년		
	상반기	6월	7월	상반기	6월	7월
수 출	826.8	1525	1446	788.3	130.7	114.9
수 입	786.4	131.8	136.7	729.9	117.3	110.9
무역수지	40.2	20.7	7.8	63.5	13.5	4.0
경상수지	40.7	17.1	10.4	68.5	10.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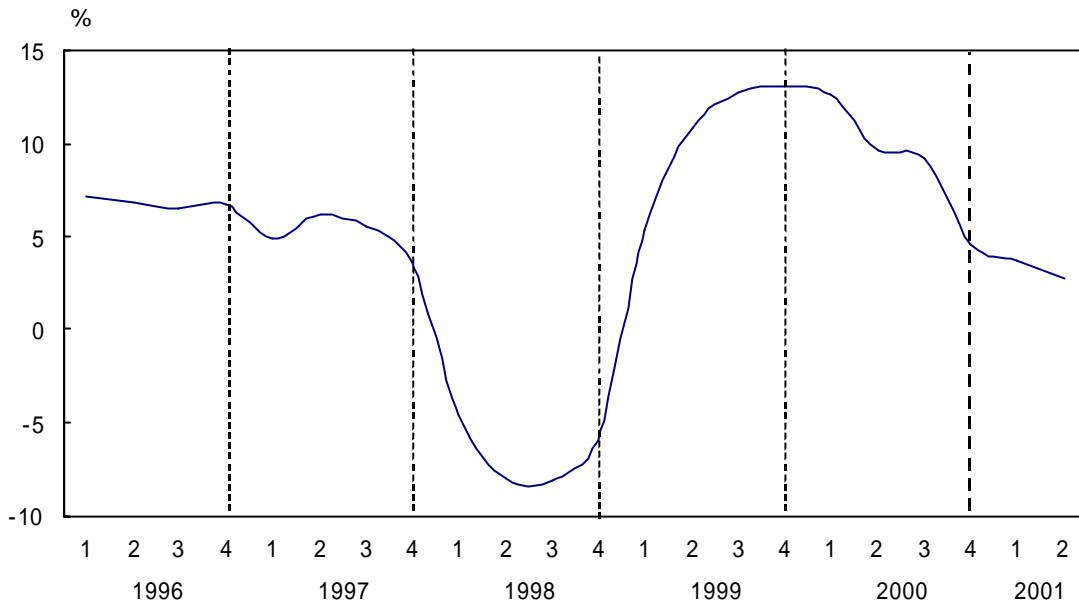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 (무역수지 흑자 급격히 감소) 7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5% 감소한 114.9억 달러, 수입은 18.9% 감소한 110.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를 보임. 그러나 흑자금액은 전월대비 70%, 전년동월대비로도 49% 감소하여 흑자폭이 급격히 둔화. (8월중 무역수지는(8월20일까지 누계) 13.8억달러 적자를 기록중)

수출감소는 IT품목의 수출 감소(△40%), 수입감소는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감소가 주원인

6. 경제성장 동향

<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 경제성장률 >

단위: % (1995년 불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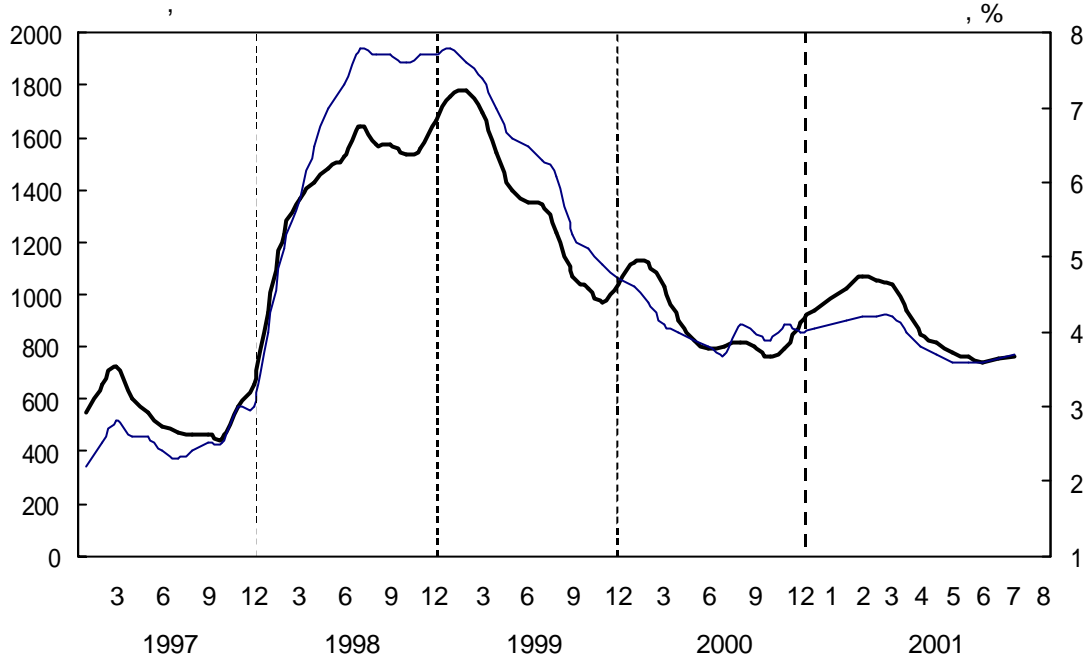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r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GDP	△6.7	10.9	12.6	9.7	9.2	4.6	8.8	3.7	2.7	25-3.5
최종소비	△10.1	9.4	9.5	7.8	4.9	3.0	6.2	0.4	2.4	
(민간)	△11.7	11.0	10.8	8.9	5.7	3.2	7.1	0.9	2.9	
투자 ^u	△21.2	3.7	21.9	13.2	10.5	1.6	11.0	△3.7	△4.7	
수출	14.2	15.8	27.1	21.4	22.5	16.4	21.6	8.4	1.2	

1) 총고정자본형성을 의미, p) 잠정치, 자료 : 한국은행

- **(성장률 하락세 지속)** 2/4분기 경제성장률은 2.7%로 당초 예상(3.3%)보다 낮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함을 나타냄. 특히 2/4분기 성장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여 민간소비 증대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성장률이 높아지기 어려울 듯.
-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듯)** 경기는 3/4분기중 저점을 지나 4/4분기중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가운데 미국의 경기회복 불확실성 증가, 일본의 경기침체 심화, 유로지역의 경기둔화 등으로 연간 3% 수준에 머물 전망.

7. 고용 변화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실업자 및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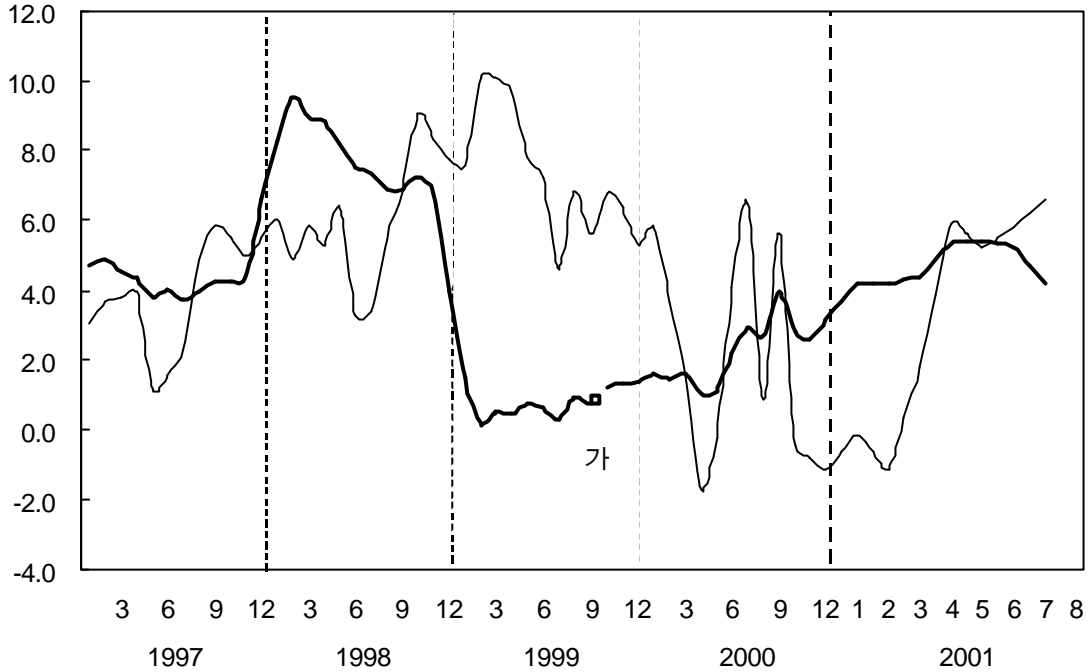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0년		2001년					
	연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	21,950	22,305	21,265	21,763	22,352	22,559	22,493	22,520
취업자	21,061	21,501	20,196	20,728	21,504	21,779	21,748	21,760
실업자	889	804	1,069	1,035	848	780	745	760
(전년동기대비)	(△34.3)	(△41.5)	(△4.6)	(0.7)	(△5.8)	(△5.8)	(△6.1)	(△5.8)
실업률(계절조정)	4.1	3.9	4.2	4.2	3.8	3.6	3.6	3.7

- **(취업자수, 실업자수 동시 증가)** 취업자수는 7월 2,176만명으로 전월대비 약 0.1%, 전년동월대비로는 1.2% 증가, 7월 실업자수는 76만명으로 전월대비 2%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5.8% 감소한 수준.
- **(실업률 안정세)** 실업률은 실업자수가 증가한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2,249만명→2,252만명) 지난 4월 이후 3.6%~3.7%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8. 물가 변동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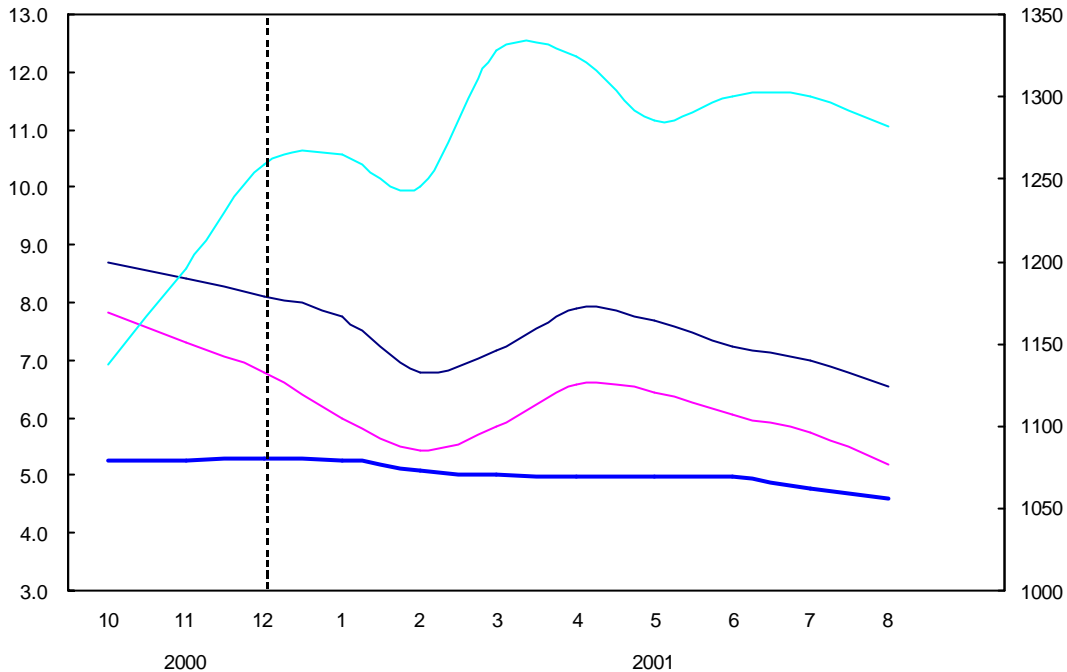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3.2	4.2	4.4	5.3	5.4	5.2	5.0
	전월대비	0.4	0.2	0.6	0.6	0.0	0.3	0.2
농축수산물	전년동월대비	△1.2	△1.1	1.8	5.9	5.2	5.8	6.6
	전월대비	△0.7	0.1	1.5	1.5	△0.6	0.9	1.4

자료 : 통계청

- **(소비자물가 상승세 약화)**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7월에도 0.2%에 머물러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7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5.0%)
-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 지속)** 농축산물 가격은 7월 채소류 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고(5.9%→10.6%) 축산물가격도 쇠고기가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월대비 1.4% 상승.

9. 금리 및 환율

< 월평균 금리변동 추이 >



< 월평균 금리 및 환율변동 추이 >

단위 : %

	20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¹⁾
콜금리	5.25	5.08	4.98	4.97	4.97	4.97	4.77	4.59
국고채 ₂	7.76	6.79	7.16	7.91	7.70	7.24	7.00	6.52
회사채 ₂	5.99	5.43	5.84	6.59	6.46	6.04	5.75	5.17
환율 ₃	1,265.5	1,245.7	1,328.0	1,324.7	1,292.9	1,300.7	1,301.4	1,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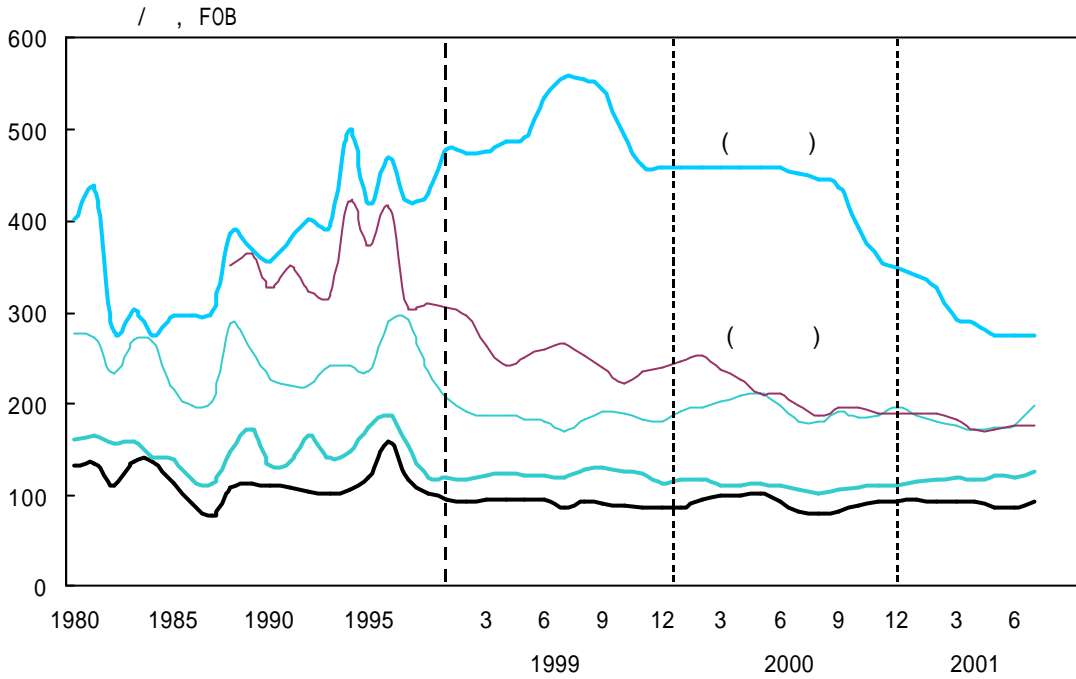
주 1) 8월29일 기준치임. 2) 3년물 기준, 회사채는 AA-기준. 3) 기말기준

- **(금리는 최근 한은의 콜금리인하로 큰 폭 하락)** 국제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영향과 자금시장 안정화대책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세를 지속하던 금리가 3월~4월 환율급등 및 MMF로부터의 자금이탈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5월 이후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차례에(7.5, 8.10) 걸친 한은의 콜금리인하(0.5%)로 국고채, 회사채 금리가 크게 하락.
- **(환율은 하향세)** 원/달러 환율은 8월 들어 미국의 경기둔화와 함께 미국 정부의 달러강세 유지여부에 대한 회의로 하락세로 반전.

Ⅱ. 농업·농촌경제 변화 동향

1. 국제곡물 가격동향

< 국제곡물가격 추이 >



< 국제곡물 가격 >

단위 : \$/톤, F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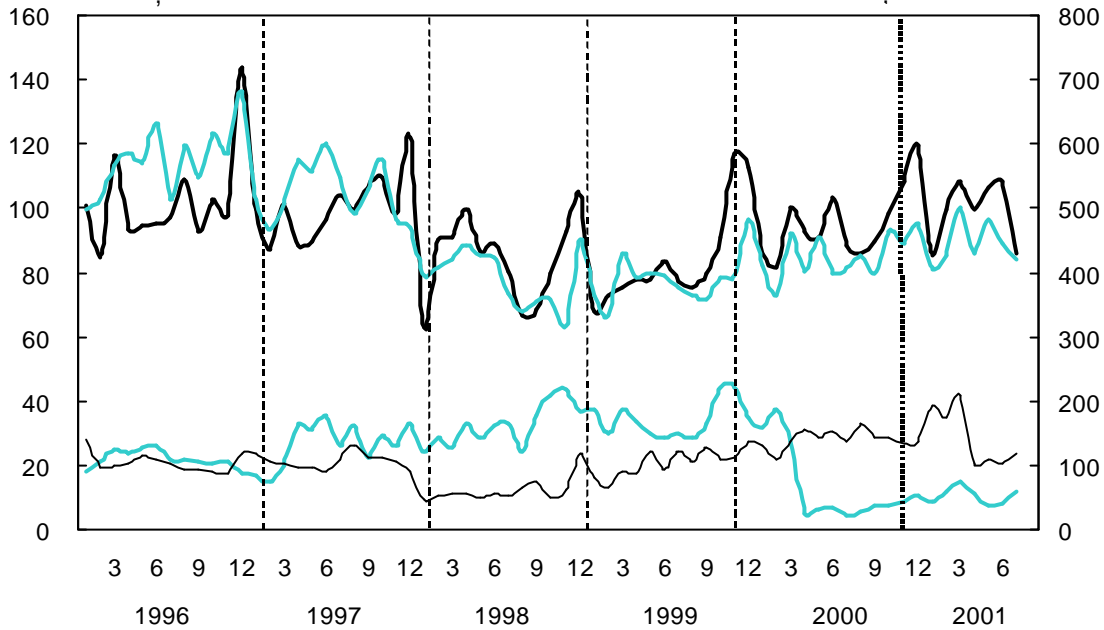
	1999	2000	20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쌀(중립종)	500.6	431.7	326.6	292.1	286.6	275.6	275.6	275.6
쌀(장립종)	255.6	211.7	190.5	183.0	171.0	171.5	176.5	176.5
콩	185.9	194.0	178.7	175.4	171.2	174.9	181.5	197.6
옥수수	92.1	91.1	93.0	93.0	92.6	87.1	85.7	93.4
밀	122.1	110.3	116.8	120.4	116.9	122.0	119.7	125.6

주: 중립종 쌀은 캘리포니아산 1등급이며 장립종 쌀은 태국산 1등급.

- (콩, 옥수수, 밀의 국제가격은 상승세, 쌀은 약보합세) 쌀을 제외한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은 교역량의 증가로 기말재고량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 5월 이후 상승세. 쌀은 재고량도 충분하고 교역량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쌀의 국제가격은 중,장립종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2.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



< 농축산물 수출입 >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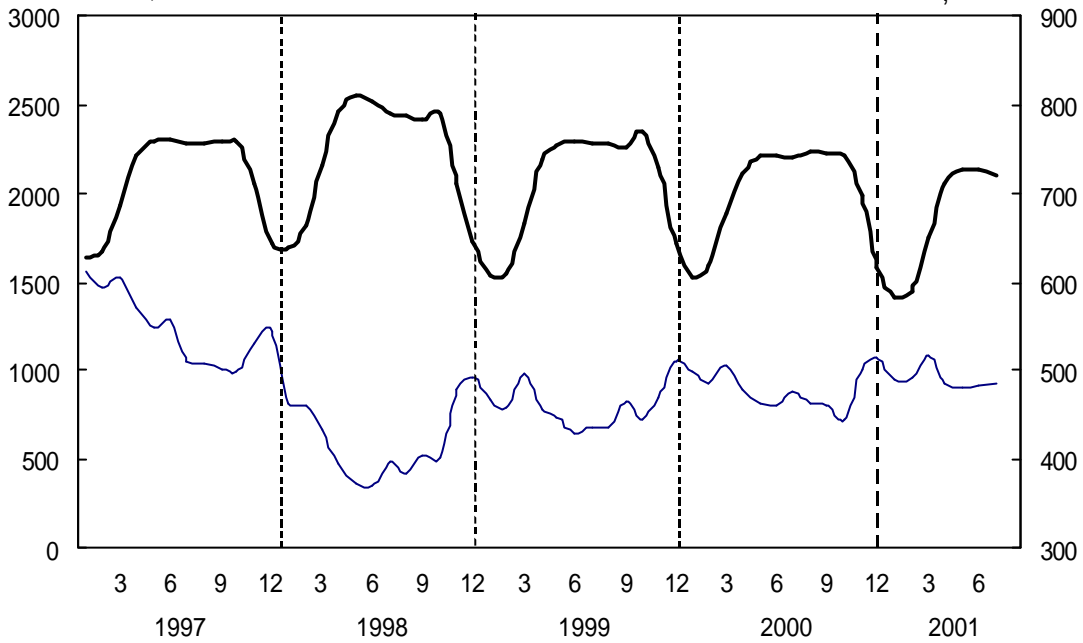
		2000 1-7월	2001 1-7월	2000, 7	2001, 7
수 출	농산물	637.1 (20.5)	690.1 (8.3)	87.7 (13.8)	85.9 (Δ2.0)
	축산물	105.0 (Δ53.1)	71.6 (Δ31.8)	4.3 (Δ85.4)	11.5 (167.4)
	소계(A)	742.1 (Δ1.4)	761.7 (2.6)	92.0 (Δ13.7)	97.4 (5.9)
수 입	농산물	2,897.8 (7.8)	3035.2 (4.7)	406.2 (8.7)	419.7 (3.3)
	축산물	961.0 (46.0)	772.6 (Δ19.6)	135.3 (10.3)	117.7 (Δ13.0)
	소계(B)	3,858.8 (15.3)	3807.8 (Δ1.3)	541.5 (9.1)	537.4 (Δ0.7)
순수입	B-A	3,116.6 (20.2)	3046.1 (Δ2.3)	449.5 (15.4)	440.0 (Δ2.1)

주: ()는 전년대비 증감율 (농림부)

- (농산물수출 감소세로, 축산물수출은 대폭 증가) 농산물수출은 7월 전년 동월대비 2.0% 감소했으나, 축산물수출은 대필리핀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00% 이상 증가. 그러나 7월까지의 누계로 축산물수출은 32% 감소
- (농산물수입 3.3% 증가, 축산물수입은 13% 감소) 농산물수출은 7월 전년도월대비 3.3% 증가했으나, 축산물은 13% 감소. 7월까지의 누계로 농축산물수입은 1.3% 감소.

3. 농림업취업자와 농외취업자

<농가취업자변동>



< 농가의 취업자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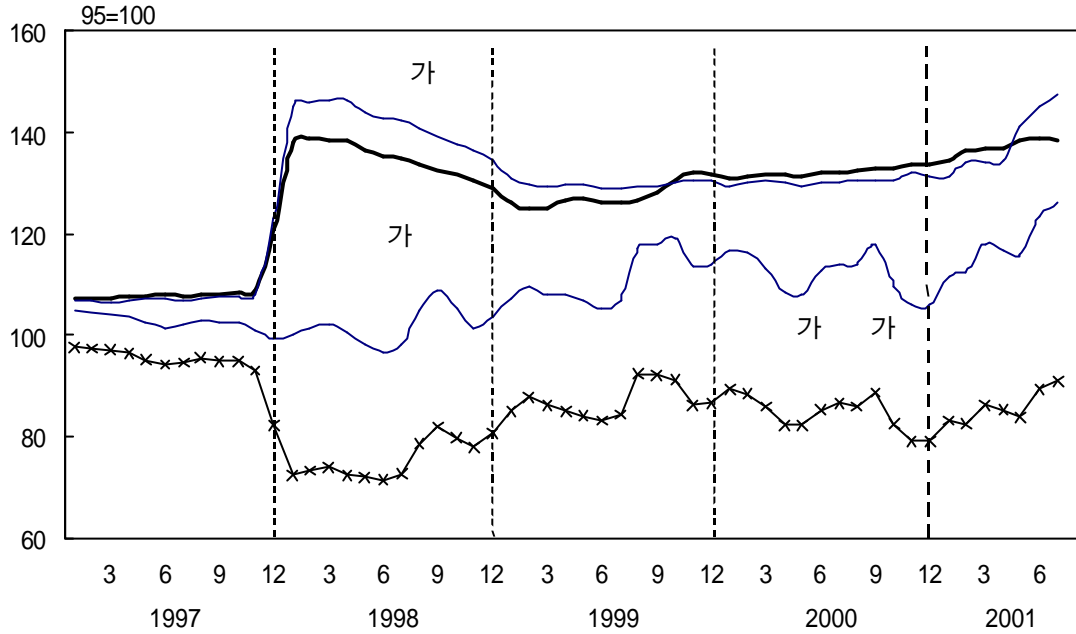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0				2001			
	1/4	2/4	6월	7월	1/4	2/4	6월	7월
농림업 취업자	1667	2176	2,212	2,203	1540	2107	2,130	2,100
(전년동월대비)	(1.0)	(△3.6)	(△4.0)	(△3.6)	(△7.6)	(△3.2)	(△3.7)	(△4.7)
농외 취업자	496	468	460	475	499	483	483	486
(전년동월대비)	(7.4)	(6.1)	(7.5)	(9.4)	(0.6)	(3.3)	(5.0)	(2.3)

- (농림업 취업자수 다시 감소세) 농림업취업자수는 7월 현재 21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 (농외취업자 소폭 증가) 농외취업자수는 7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한 48만 6천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4. 농촌물가

< 농촌물가 추이 >



주: 투입재가격은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가격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치임.

< 농촌물가지수 변화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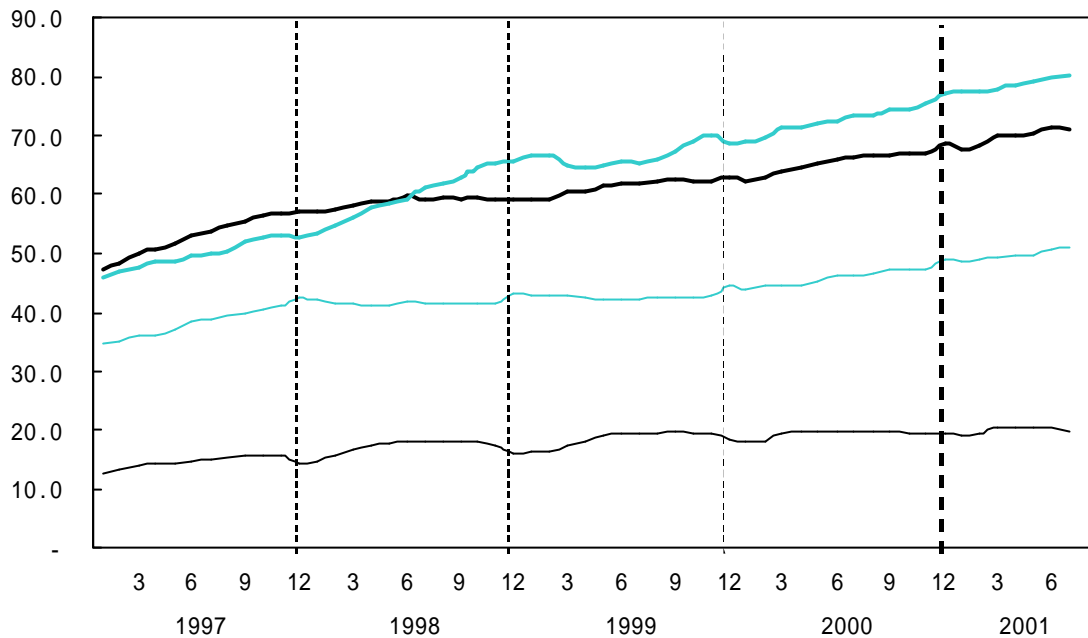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0.7	2001.4	2001.5	2001.6	2001.7
농가판매가격지수	101.9 (△0.8)	108.5 (9.1)	109.6 (0.7)	114.1 (6.8)	116.7 (7.6)	115.8 (7.4)	123.6 (9.6)	125.9 (10.3)
투입재가격지수	134.8 (23.9)	127.6 (△5.3)	132.2 (3.6)	132.0 (4.4)	136.8 (3.9)	138.4 (5.4)	138.6 (5.0)	138.4 (4.8)
판매가격/투입재	75.6	87.0	84.6	86.4 (2.3)	85.3	83.7	89.2	91.0 (5.3)

주: ()안 숫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율 (통계청)

- (농업경영여건 완만한 호전세) 농업투입재 대비 농가판매가격의 비율이 농축산물 가격상승으로 7월 들어 91.0을 기록, 전월(89.2)보다 1.8%p 상승. 올해 5월 이후 농업경영여건이 완만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농업금융

< 농업금융 잔고 >



< 농업금융 잔고 최근 동향 >

단위: 조원

		2000.7		2001.7		전년동월 대비(%)
		잔 고	전월차	잔 고	전월차	
대 출	상호금융	46.2	0	51.0	0.1	10.4
	정책자금	19.9	0.1	19.9	△0.4	0.0
	계	66.1	0.1	70.9	△0.3	7.3
예 금	상호금융	73.2	△0.4	80.1	0.4	9.4

- **(농업금융 대출액 7.3% 증가)** 농업자금 대출잔고는 전년동월대비 상호금융이 10.4% 증가, 총대출액은 70조 9천억 수준으로 전년동월보다 7.3% 증가.
- **(상호금융 예대비율 전월보다 0.2%p 하락)** 상호금융 예수금 잔고는 올해 7월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한 80조 1천억 수준이나, 대출잔고는 10.4% 증가한 51조를 기록, 예대비율이 전월(63.9%)보다 0.2%p 하락한 63.7%에 머물러 상호금융수지에 어려움 예상.

6. 주요 농산물의 소득

- (대파, 봄배추, 봄무, 수박의 소득감소폭 축소) 봄배추, 봄무, 대파, 수박의 소득은 올해 5월까지 가격하락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으나, 6월부터 가격이 회복되어 전년동기대비 감소폭 축소
 - 대 파: $\Delta 19.5\%$ (5월) $\Rightarrow \Delta 18.4\%$ (6월) $\Rightarrow \Delta 13.5\%$ (7월)
 - 봄배추: $\Delta 19.3\%$ (5월) $\Rightarrow \Delta 7.1\%$ (6월) $\Rightarrow \Delta 6.4\%$ (7월)
 - 봄 무: $\Delta 47.5\%$ (5월) $\Rightarrow \Delta 28.0\%$ (6월) $\Rightarrow \Delta 27.0\%$ (7월)
 - 수 박: $\Delta 4.6\%$ (5월) $\Rightarrow \Delta 33.7\%$ (6월) $\Rightarrow \Delta 29.2\%$ (7월)

- (마늘, 양파의 소득은 감소, 반면 고랭지채소, 참외, 토마토, 오이의 소득은 대폭 확대) 마늘, 양파의 소득은 가격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토마토, 참외, 오이의 소득은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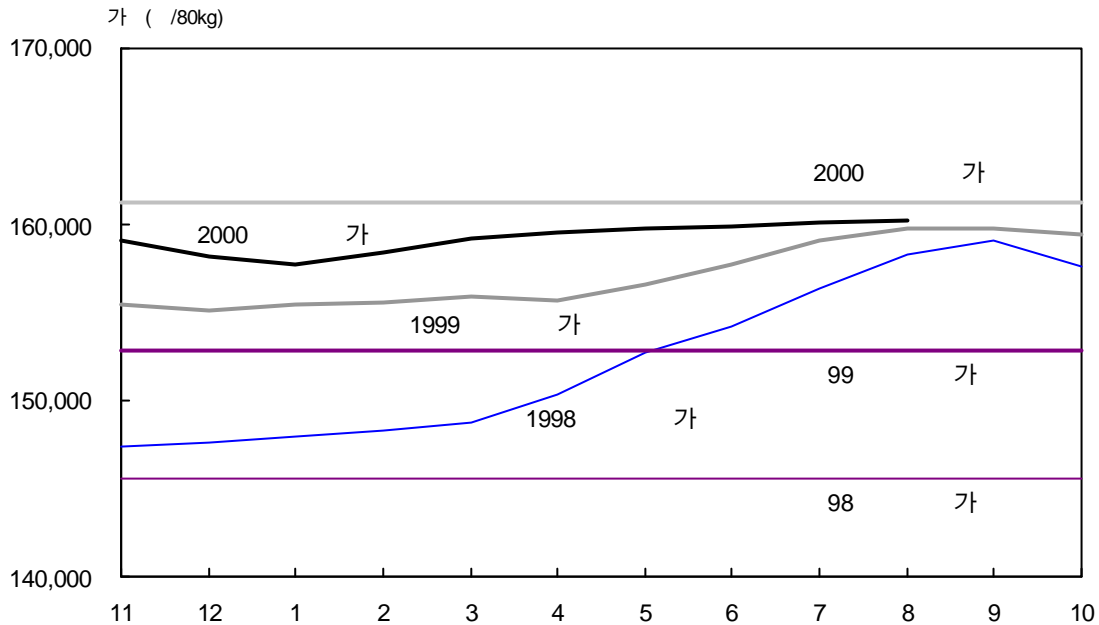
- (올해 7월까지의 경종작물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약 1% 증가한 듯) 올해 7월까지의 경종작물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약 1% 증가한 것으로 추정.

< 2001년 1월~7월중 주요 농산물의 소득 변화: 전년 동기 증감율 >

품 목	단 수	면 적	생산량	가 격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대 파	$\Delta 0.2$	$\Delta 2.1$	$\Delta 2.3$	$\Delta 6.2$	$\Delta 8.3$	0.8	$\Delta 13.5$
봄 배 추	$\Delta 1.1$	$\Delta 5.1$	$\Delta 6.1$	1.3	$\Delta 4.8$	$\Delta 2.7$	$\Delta 6.4$
봄 무	$\Delta 1.5$	$\Delta 1.0$	$\Delta 2.5$	$\Delta 14.8$	$\Delta 16.9$	1.3	$\Delta 27.0$
수 박	$\Delta 0.6$	$\Delta 3.5$	$\Delta 4.1$	$\Delta 14.7$	$\Delta 18.2$	$\Delta 3.5$	$\Delta 29.2$
시설감귤	1.7	1.7	3.4	4.1	7.7	10.8	$\Delta 1.5$
양 파	8.0	13.0	22.0	$\Delta 42.8$	$\Delta 30.2$	15.6	$\Delta 51.7$
마 늘	4.0	$\Delta 17.0$	$\Delta 13.7$	$\Delta 12.9$	$\Delta 24.8$	$\Delta 16.0$	$\Delta 33.5$
시 설 포 도	0.9	0.8	1.7	2.9	4.7	7.1	2.5
오이(축 성)	$\Delta 4.8$	$\Delta 2.3$	$\Delta 7.0$	19.7	11.3	3.3	18.9
오이(반축성)	$\Delta 0.9$	0.4	$\Delta 0.6$	1.4	0.8	0.4	1.3
고랭지배추	$\Delta 6.9$	$\Delta 8.0$	$\Delta 14.3$	55.8	33.5	$\Delta 5.4$	56.0
고랭지 무	$\Delta 8.6$	$\Delta 11.0$	$\Delta 18.6$	220.3	160.7	$\Delta 8.5$	250.8
감귤 (만감)	22.8	3.1	26.6	37.7	74.3	11.9	215.2
참 외	1.9	$\Delta 1.8$	0.1	6.1	6.2	0.6	10.3
시설토마토	2.1	$\Delta 0.6$	1.5	51.5	56.4	4.3	119.6

7. 쌀 수급동향과 전망

< 쌀 가격 추세(명목가격) >



< 쌀 가격 변동추세 >

단위 : 명목, 원/80kg, %

월	2000		2001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¹⁾
산지가격	159,163	158,206	157,751	158,358	159,183	159,495	159,781	159,891	160,156	160,250
전월대비	△0.2	△0.6	△0.3	0.4	0.5	0.2	0.2	0.1	0.2	0.1
전년동월 대 비	2.4	2.0	1.5	1.8	2.1	2.4	2.0	1.4	0.7	0.3

주 1) 8월 21일 현재 가격임.

자료 : 농림부.

- 금년 7월 쌀 산지가격은 16만 156원/80kg으로 전월에 비해 0.2%, 작년 12월(15만 8,206원/80kg) 대비 1.0%, 전년동월 대비 0.7% 상승에 그쳐 계절진폭은 1% 이하 예상.
- 8월 21일 현재 쌀 산지가격은 16만 250원으로 2000년산 정부수매가격인 16만 1,270원/80kg에 미달.

< 1인 1일당 쌀 소비량 변동 >

단위 : g/1인/1일, %

월	1999년산				2000년산			
	12월	4월	5월	6월	12월	4월	5월	6월
전체	260.3	258.1	253.0	252.7	245.7	243.8	241.6	241.4
농가	382.8	378.7	374.6	376.4	378.5	373.6	369.8	371.6
비농가	248.2	246.5	241.3	240.9	233.3	232.0	229.9	229.5
전년동월 대비(전체)	△2.3	△3.6	△5.0	△3.6	△5.6	△5.5	△4.5	△4.5

주) 2000년산 쌀소비량은 잠정치임. 자 료 : 통계청.

- 1인 1일당 쌀소비량은 올해 6월 241.4g으로 전월대비 0.08%, 전년동월 대비 4.5%가 감소. 그러나 5월 이후 소비량 감소폭이 정체되어 소비감소세는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쌀소비량 감소의 가구별 추세를 보면, 농가소비는 올해 6월 전년동월 대비 1.3% 감소하여 전년 변화추세와 비슷하나, 비농가 소비는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하여 쌀소비량 감소를 주도.
- 한편 지난 8월 29일 쌀 수급 안정대책의 발표로 내년 3월의 쌀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어 올해 수확기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수확기 가격을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2002년 계절진폭을 확대하려면 2002년 단경기 가격이 올해 보다 높아져야 하므로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
- 2001년산 생산량이 3,700만석이 되면 2002년 재고량은 1600만석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400~500만석의 소비확대 필요.
- 2001년도 산 평균가격이 2000년 산 보다 높아져 2002년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수급균형을 위한 대책수립 필요.
- 수확제도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법, 이자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조속히 공표하고 9월 중 각 RPC가 희망물량에 대한 자금을 신청하도록 조속한 절차 확립 필요.

8. 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8월 채소 주출하지인 고령지지역의 가뭄과 고온으로 채소 작황이 나빠, 8월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7월에 이어 강세를 보였음. 특히 배추, 무, 쪽파, 당근, 양배추의 8월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36~76% 높고, 작년 동기보다는 32~106% 높았음.
- 8월 하순 이후 출하예정면적이 늘어나고 작황도 호전되고 있어 9월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
- 통계 채소 재배의향면적조사 분석 결과,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 면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채소류 도매가격 증감 동향 (상품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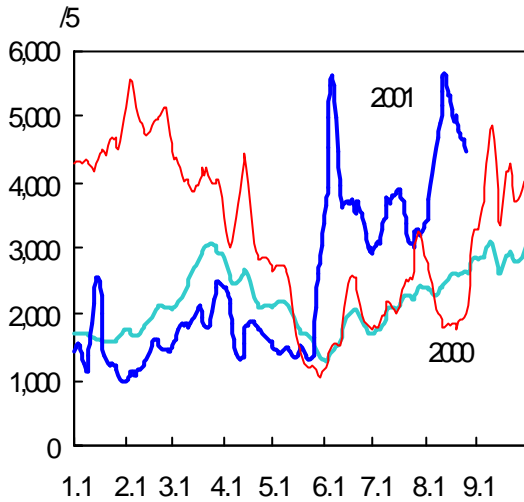
단위: %

	1~7월 평균가격		8월 평균가격		
	지난해 동기대비	평년 동기대비 ¹⁾	전월대비	지난해 동기대비	평년 동기대비 ¹⁾
배추	△34	7	35	106	69
무	△22	13	△21	91	76
고추	14	25	△12	19	25
마늘	△2	△25	21	20	△10
양파	△16	△23	11	△13	△17
대파	△7	2	35	8	17
쪽파	17	△9	31	85	36
감자	18	1	△1	24	6
당근	24	26	△10	32	72
양배추	△39	△17	56	83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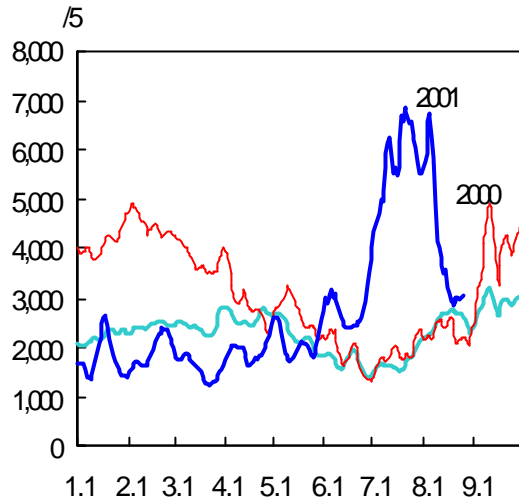
주 : 1)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무·배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



<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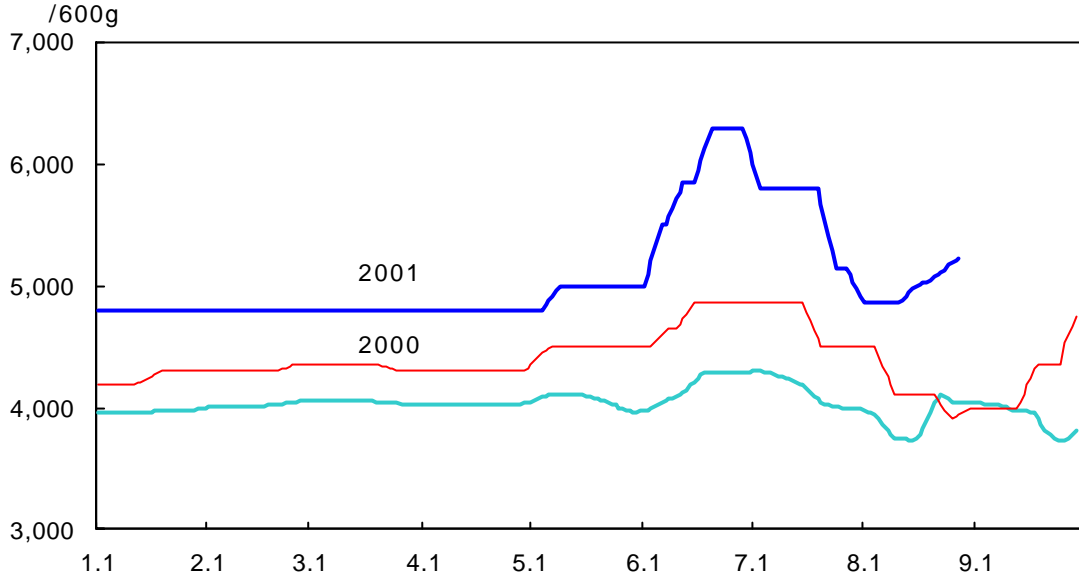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월의 배추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고령지의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나빴고, 경기 북부의 얼갈이배추 출하량도 적었던 데 기인. 9월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7%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평년 가격보다 약간 높은 320만원 내외로 안정될 전망이나 가뭄이 지속되거나 태풍이 올 경우 가격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
- 5월 가뭄의 영향으로 파종이 지연되어 7월에 매우 높았던 무 가격은 8월 중순 이후 출하가 몰리면서 평년 수준으로 하락. 9월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0%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270만원) 전망.
- 작년 재배면적이 많았던 가을무·배추 재배의향 조사 결과(관측센터, 8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가을무는 지난해 대비 4% 감소(평년 대비 3% 감소), 가을배추는 지난해 대비 10% 감소(평년 대비 2% 증가), 겨울배추는 지난해 대비 4% 감소. 가을, 겨울의 무, 배추 가격은 대체로 평년 가격 수준 전망.

다. 고추

<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년~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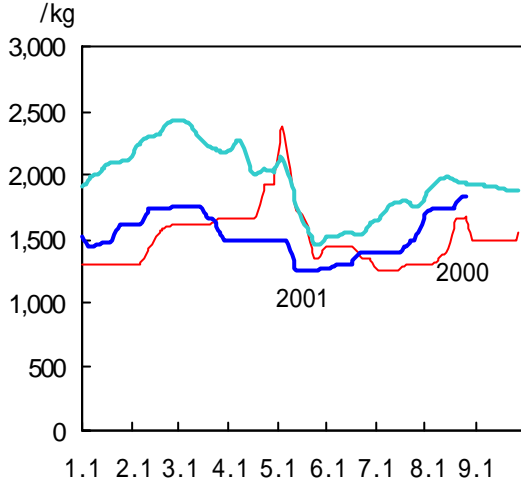
- 올해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한 70,736ha이고, 10a당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2% 감소한 254kg 전망. 예상 생산량은 1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7%, 평년 보다는 12% 적은 수준.
- 중국의 익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약 10% 감소하였고, 8월말 현재 주당 착과수도 20% 적어 생산량은 30% 감소할 전망.
- 올해산 고추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8% 이상 높은 5,200원(화건 상품 600g) 이상 전망.

< 고추 생산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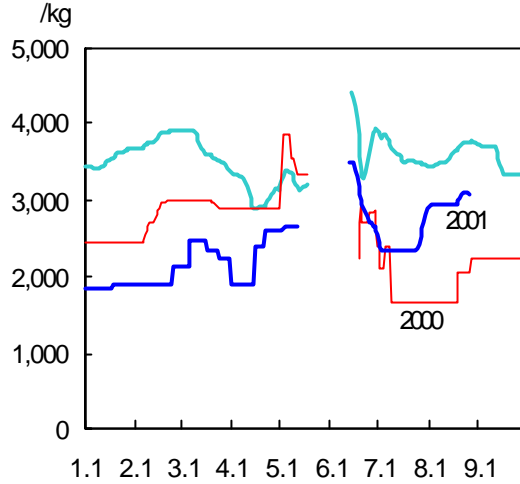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증감률(%)
재배면적 (ha)	74,471	70,736	-5.0
단수 (kg/10a)	260	254	-2.3
생산량 (톤)	193,800	179,700	-7.3

라. 마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 (상품) >



< 한지형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올해 마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 적으나, 수입이 늘어나 총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0% 적을 전망.
- 8월 중순 현재 마늘 저온저장량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12% 적고, 농가보유량은 9% 적은 것으로 조사됨.
- 난지형 마늘 상품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15% 높은 1,700~1,800원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비축량 9천톤을 계속 시장격리시킬 경우에는 1,800~1,900원 전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8월 조사결과,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평년단수를 가정할 경우 내년산 예상생산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하며, 내년산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올해보다 약간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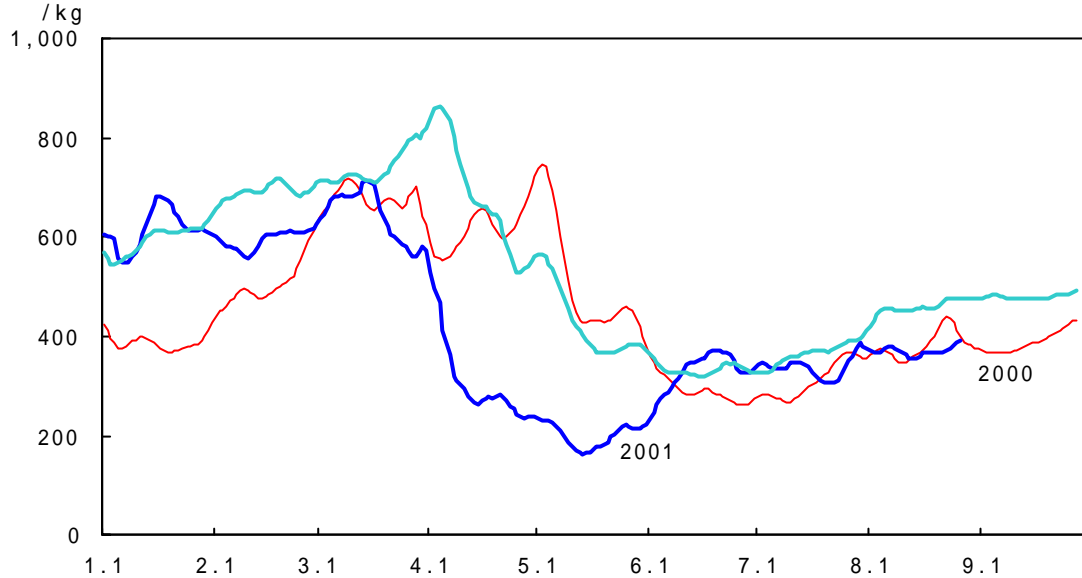
< 마늘 저장 현황 (8월 15일 현재) >

단위: 천톤

	저온저장 입고량	농가보유량	계
2000년산	106	102	350
2001년산	94	93	291
증감률(%)	-11.5	-9.4	-16.9

마. 양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월 15일 현재 중만생종 양파의 농가보유량은 지난해보다 25% 많으나, 감량이 많아 9월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400원 내외로 약상승 전망.
- 양파 저온저장량은 지난해보다 15% 많아 10월 이후 내년 3월까지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약 20% 낮은 상품 kg당 450~500원 전망.
- 내년산 조생종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은, 재배면적이 재작년보다 92%나 증가하였던 작년에 비하여, 1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고 저온저장량도 많아 내년 조생종 수확기의 가격이 올해보다는 약간 높겠으나 평년 수준보다는 대폭 낮을 전망이므로 면적 감소 유도 필요.
- 내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내년 가격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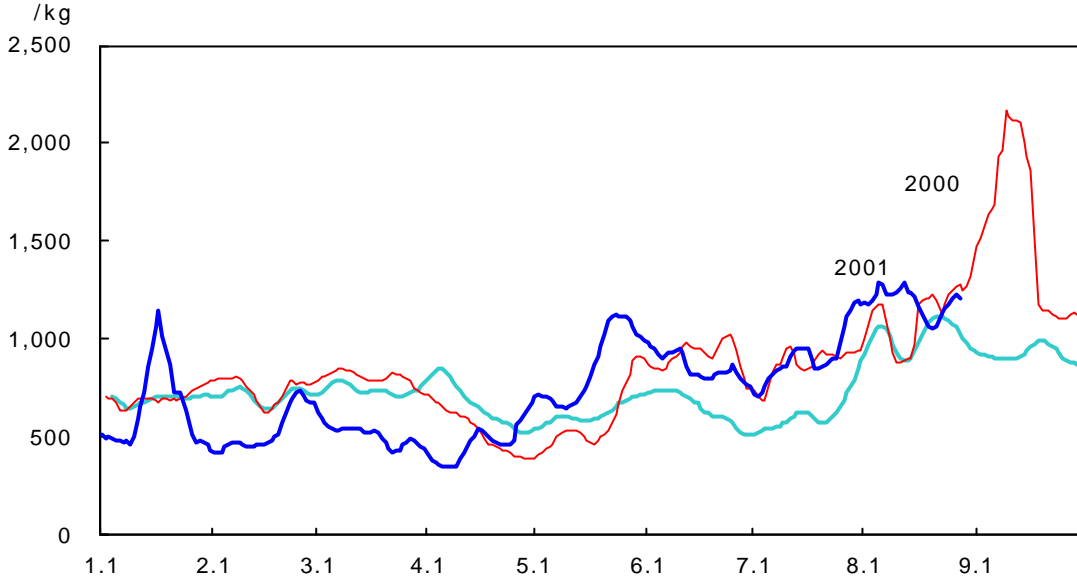
< 양파 저장 현황 (8월 15일 현지) >

단위: 천톤

	저온 저장입고량	농가보유량	계
2000년산	391	93	484
2001년산	450	116	566
증감률(%)	15.0	24.8	16.9

바. 대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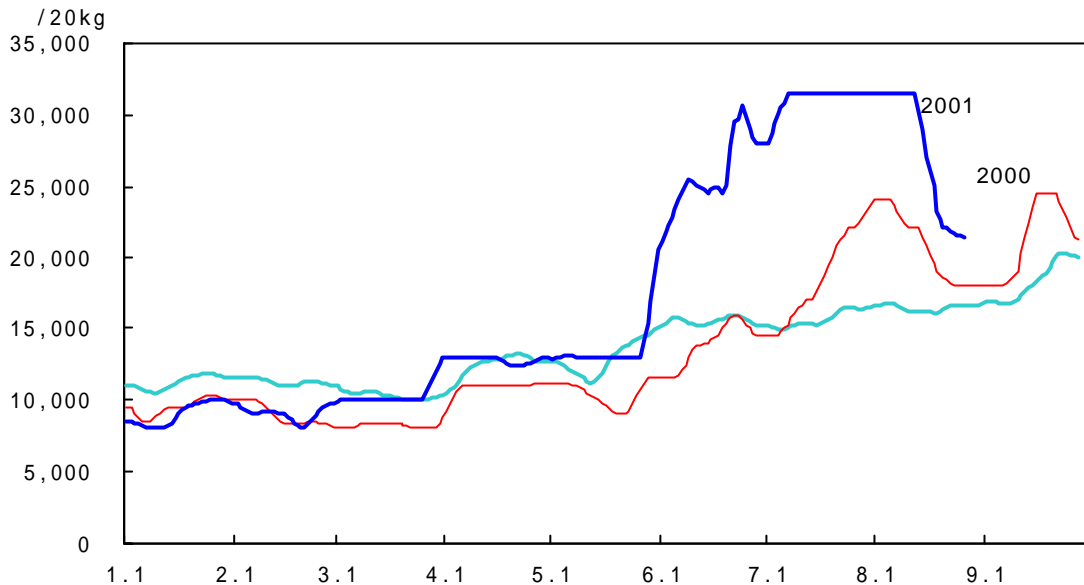
- 경기지방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고온으로 작황이 나빠 8월에 상품 kg당 1,200원으로 높았던 대파 가격은 9~10월도 보합세를 보일 전망.
- 김장철에 출하될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3% 많으나 생육상황이 나쁜 편이어서 김장철 대파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약간 높을 전망.
- 작년 재배면적이 재작년에 비하여 8% 증가하여 공급과잉현상을 보였던 남부지방의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하여 지난해와 같은 공급과잉현상은 없을 전망.

< 대파 재배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

출하시기	단위: %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전체
가을	5.5	4.9	1.7	-1.7	5.7	8.1	5.7
김장	2.3	-1.3	0.0	8.2	-3.6	-3.3	3.0
겨울	-	-	-	-11.1	-	-7.8	-10.0

사. 당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예년에는 7월 하순부터 출하되던 고령지당근이 금년에는 가뭄으로 출하가 20일 늦어짐에 따라 7~8월 가격은 매우 높았으나, 8월 하순부터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하락세.
- 가격이 높아 5~7월의 수입량이 3,200톤에 달하였으며, 중국이 주수입국. 8월에도 수입량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가격이 하락하면서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보임. 9월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량 줄어들 전망.
- 고령지당근의 출하 지연에 따라 9~10월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9% 많을 전망이며, 수입분의 재고량도 많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7~8월에 파종된 당근 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 내년 1~3월에 출하될 겨울당근의 도매가격은 금년초 가격보다 약간 높은 평년가격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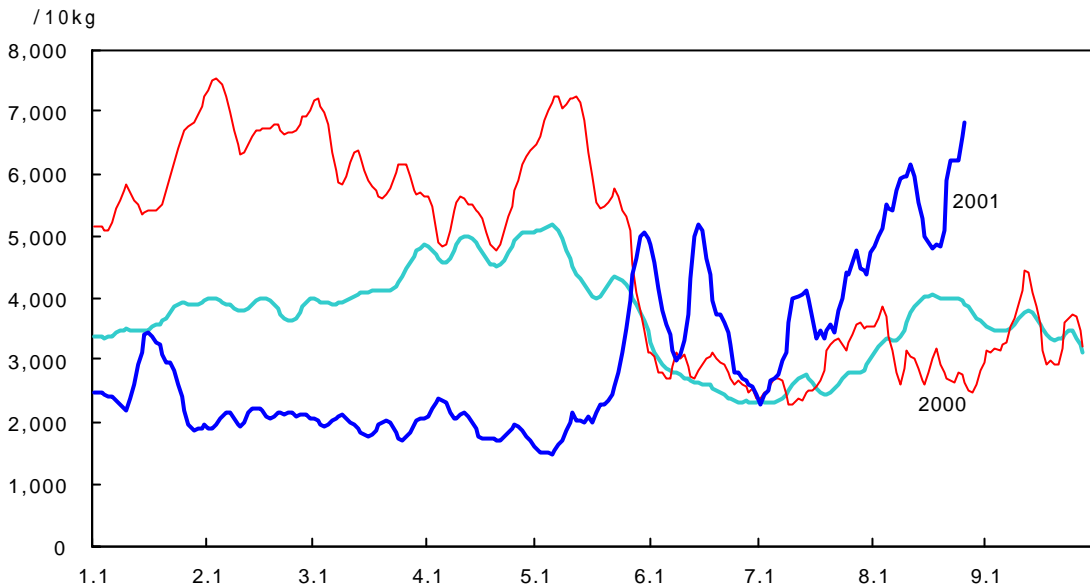
< 7~8월 당근 파종면적의 지난해 대비 증감률 >

단위: %

충청	영남	제주	전체
1.9	-6.7	-4.5	-4.1

아.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고령지양배추의 정식기 가뭄으로 출하가 10일 정도 지연되었고, 생육기 기상도 나빠 작황도 부진하여 7월에 이어 8월 가격도 상승세를 보임.
- 출하 지연에 따라 9월까지 출하된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1% 적었으나, 9월 이후에는 작년 동기보다 12% 많을 전망. 따라서 9~10월 양배추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8~9월에 정식되는 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던 작년에 비하여 5% 감소에 그칠 전망. 12~4월 가격은 작년보다는 약간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

< 고령지양배추 출하예정물량의 지난해 대비 증감률 >

단위: %

8월 까지	9월 이후
-10.6	12.5

< 8~9월 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의 지난해 대비 증감률 >

단위: %

충청	호남	제주	전체
-4.9	-14.8	-1.8	-5.3

9.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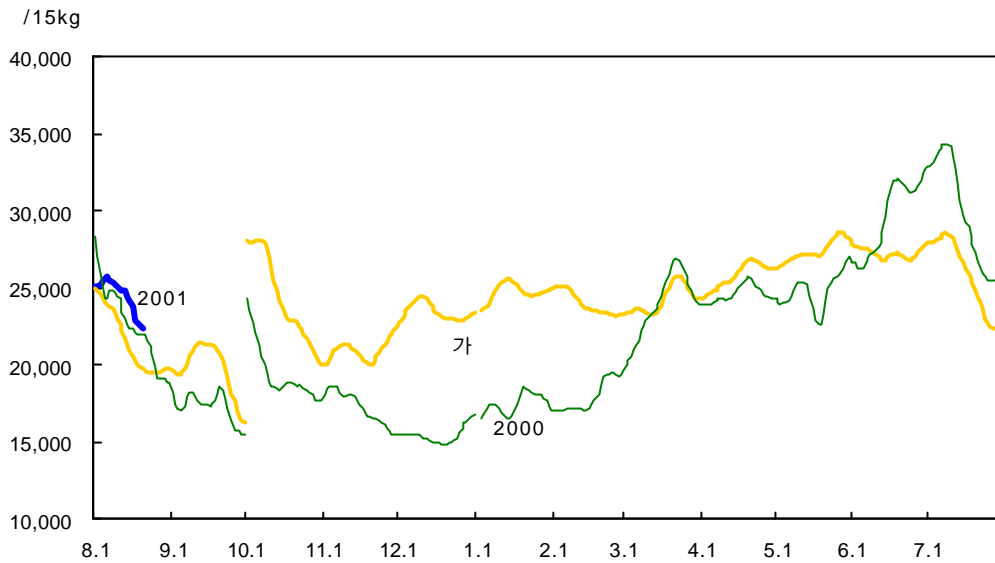
- 올해 가을 과일 생산량은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사과, 단감, 포도 생산량은 면적감소와 저온피해로 지난해보다 각각 11%, 7%, 3% 적고, 배와 노지감귤의 생산량은 각각 12%, 35%씩 많아 총공급량은 5% 정도 많을 전망이다.
- 올해 추석(10월 1일)이 예년보다 보름이상 늦기 때문에 추석용 과일 공급이 원활하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추석에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10월 이후 공급량이 줄어들어 10월 이후 저장과일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이다.

(단위 : % , 톤)

	1~7월 가격		8월 중순가격	
	지난해동기 대비	평년동기대비	지난해동기 대비	평년동기대비
사과	△6	△10	4	10
배	△13	△30	81	△10
감귤	32	△29	△9	△13
포도 ¹⁾	22	23	△31	△28
복숭아	21	7	△10	△17
오렌지	26	△26	45	1

나. 사과

< 가격동향 >



주 : 8~9월은 쓰가루, 10~익년 7월은 후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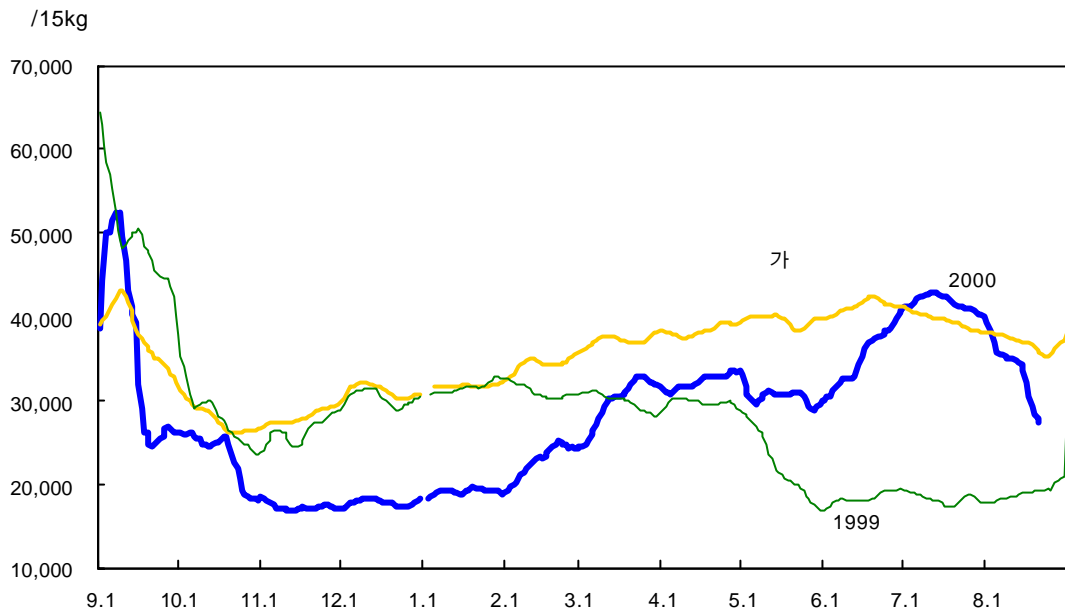
- 7월 중순부터 출하된 쓰가루의 8월 가격은 상품 15kg당 2만 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 평년보다는 10%정도 높은 수준임.
- 사과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1만 9,200ha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단수는 1%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1%정도 감소한 44만톤 수준 전망.
- 그러나, 홍로, 홍월등 중생종 재배면적이 늘어난데다 후지도 수확되기 시작하므로 올해 추석 공급량은 충분할 듯.
- 10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3% 정도 적을 것으로 보여 가격은 지난해(연평균 2만원)보다 상당히 높을 전망.

<사과 공급량 추정>

		생 산 량 (A)	8~9월 공급량(B)	10월 이후 공급량(A-B)
공급량 (천톤)	'00년산	489	118	371
	'01년산	436	113	323
'01/'00 감소율(%)		-10.8	-4.2	-12.9

다. 배

< 가격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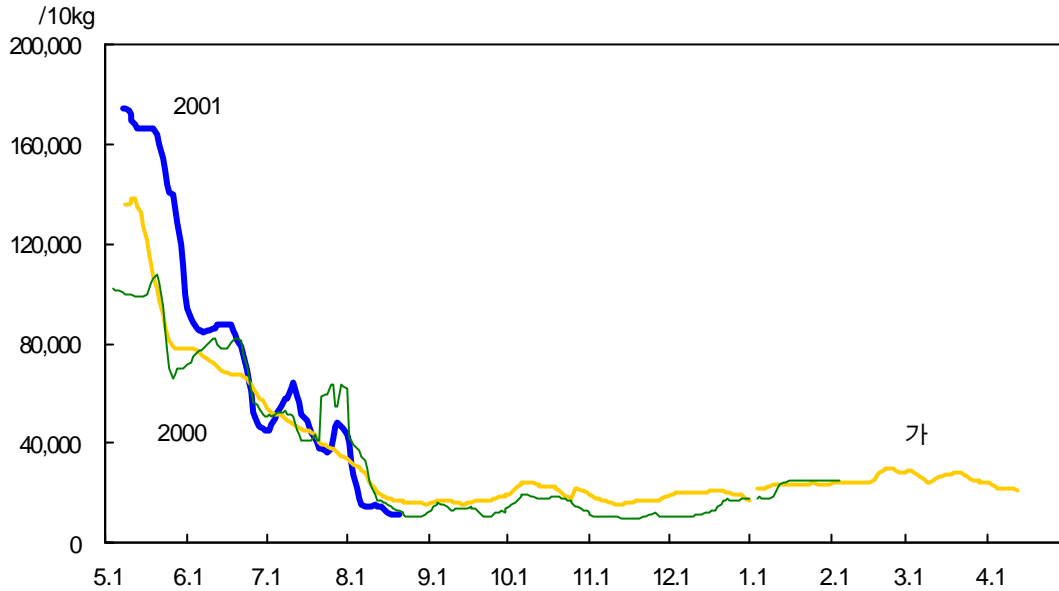
- 배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1%정도 늘었고 단수도 1%정도 높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정도 증가한 36만톤이 될 전망.
- 추석이 예년보다 보름이상 늦어 신고배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석 가격은 안정되고, 소비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54%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추석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3%정도 늘어난 28만톤 수준에 머물 전망이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

< 배 공급량 추정 >

		생 산 량 (A)	9월 공급량 (B)	10월 이후 공급량(A-B)
공급량 (천톤)	'00년산	324	54	270
	'01년산	362	83	279
'01/'00 증가율(%)		120	537	33

라 포도

< 가격동향 >



주 : 4월~7월1일까지는 델라웨어 6kg을, 7월 12일~8월 2일까지는 캠벨얼리 5kg을 각각 10kg으로 환산, 8월 3일~10월은 캠벨얼리 10kg, 11~익년 4월은 세단(세레단) 10kg임.

- 7월 중순 이후 무가온 시설포도와 노지포도 출하가 늘어나 포도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2~4%정도 낮은 수준임.
- 올해 노지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캠벨은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거봉과 세단은 각각 11%, 17%정도씩 줄어, 10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9%정도 적을듯.
- 8월 중순 이후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어 9월 이후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높을 듯. 특히 거봉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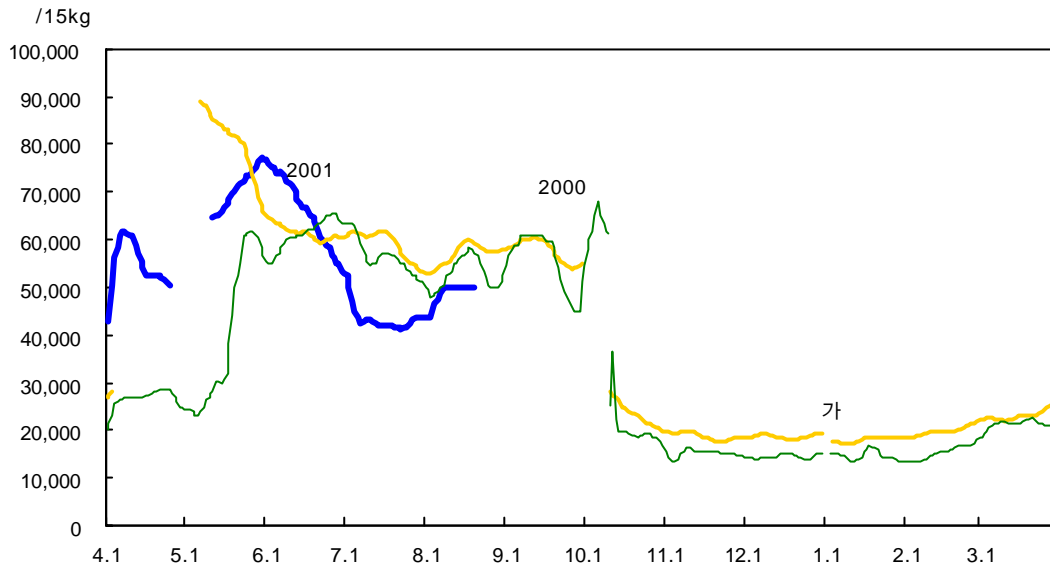
<월별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을 추정>

(단위 : %, 톤)

	8월	9월	10월이후
수확면적	-30	-51	-125
단 수	38	21	35
출하량	07	-31	-94

마. 감귤

< 가격동향 >



주: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월동재배 및 하우스감귤 5kg를 15kg로 환산한 가격임.

- 하우스감귤 8월 가격은 상품 15kg당 1만 6,1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9%정도, 평년 동기보다는 15%정도 낮은 수준임.
- 노지감귤의 수확면적은 '휴식년제'의 도입과 폐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8% 정도 적은 20,780ha 수준 추정. 10당 열매수가 지난해보다 71%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수는 47% 정도 증가할 전망이므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72만톤 수준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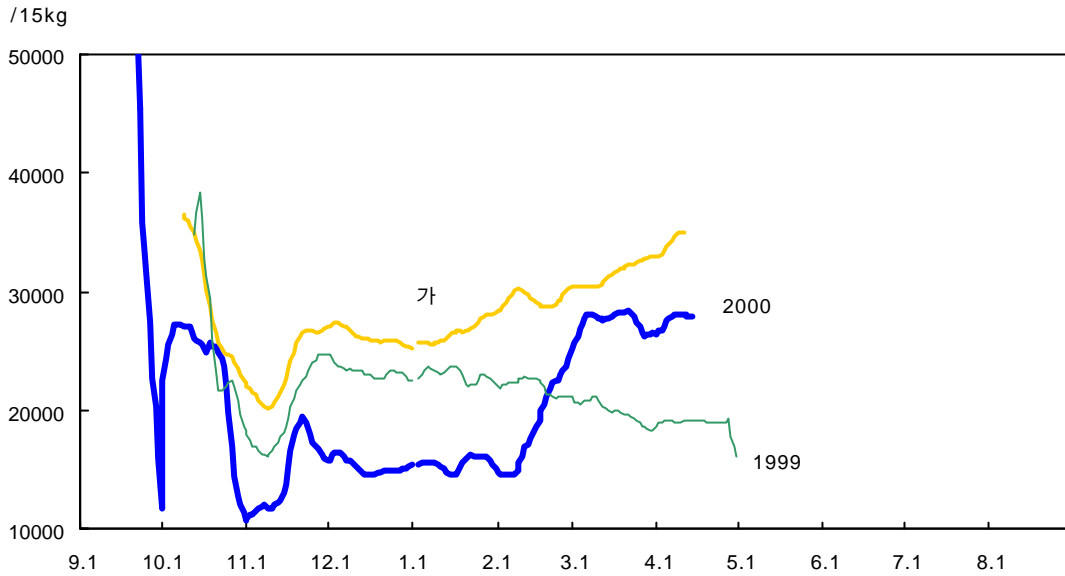
< 감귤 생산 전망 >

(단위 : % , 톤)

	수확가능면적	단 수	생 산 량
'00년산	22,692	2,361	536
'01년산	20,780	3,469	720
'01/'00 증감율	-8.4	46.9	34.5

바. 단감

< 가격동향 >



- 단감의 착과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남 사천·진주, 전남 광양·순천지역에서 착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단수가 지난해보다 9%정도 감소할 전망, 성목면적은 2% 정도 늘어났으므로 올해 단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정도 적은 21만톤 수준이 될 전망.
- 9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5%정도 적은 수준이 될 전망, 이는 서촌조생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정도 적겠지만,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져 부유 등 중·만생종 출하가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

< 단감 공급량 추정 >

		생산량	9월 공급량	10월 이후 공급량
공급량 (천톤)	'00년산	227	11.1	216
	'01년산	211	10.5	200
'01/'00 증감율(%)		-7.2	-5.4	-7.4

10.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봄철가뭄으로 정식이 지연되고, 생육이 나빠 7월까지 대부분 과채류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고, 8월에도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9월에는 수박, 토마토, 오이, 호박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채류 전체공급량이 많을 전망.
- 8월 이후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가격이 좋지 않은 수박, 오이는 줄고, 토마토, 호박은 늘어날 전망.

<지난해 동기대비 과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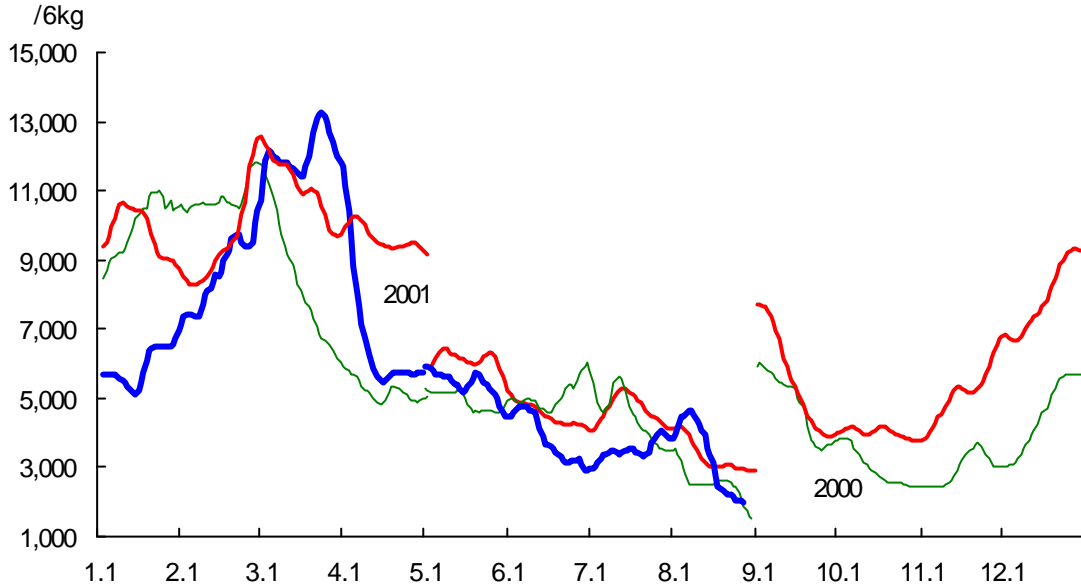
(단위 : %)

	1~7월 가격		8월 가격	
	작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작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수 박	△4	△40	20	1
참외	△89	△93	1	△21
토마토	△82	△88	96	43
방울토마토	22	△39	39	40
호박(쥬키니)	27	33	5	6
호박(애호박)	12	△15	51	△5
오이(취청)	14	20	35	5
오이(백다다기)	12	△7	29	27
메론	△12	△24	0	8

주 :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수박

< 가격동향 >



- 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출하면적도 줄고, 단수도 지난해보다 낮아 지난해동기보다 44% 감소하여 8월 가격은 평년(상품 3,300원/6kg)보다 1%, 지난해(상품 2,800원/6kg)보다 32% 높은 수준임.
- 9월에는 출하량이 3% 정도 많고 품질은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9월 수박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상품 6kg당 4,700원)보다 낮을 전망.
- 8~10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격이 낮아 지난해보다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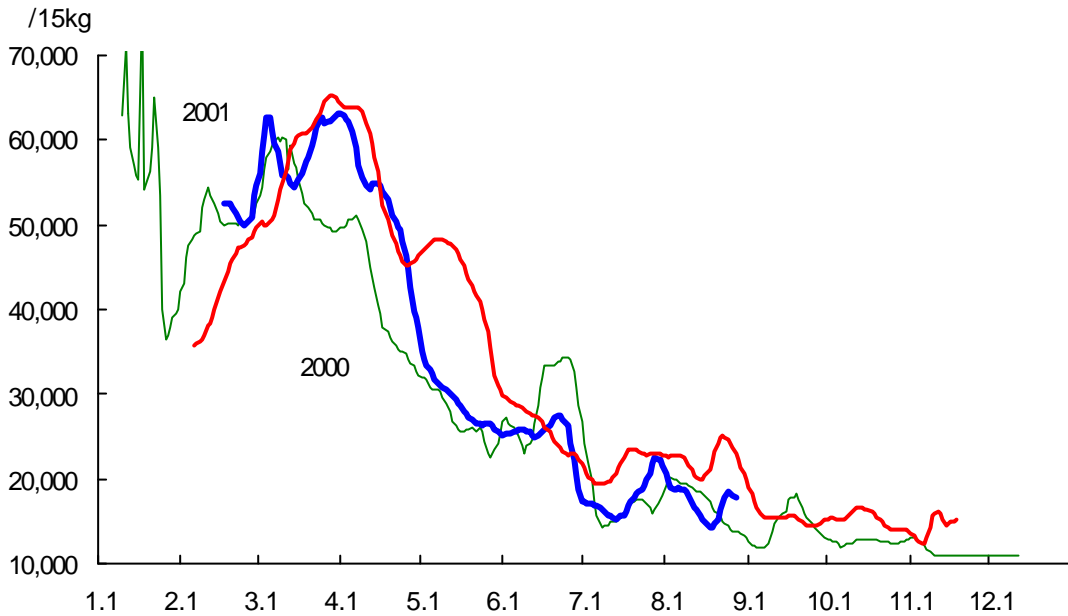
< 지난해 대비 공급량 및 정식의향면적 증감률 >

(단위 : %)

9월 예상출하량	8~10월 정식(의향)면적
3.1	△3.0

다. 참외

< 가격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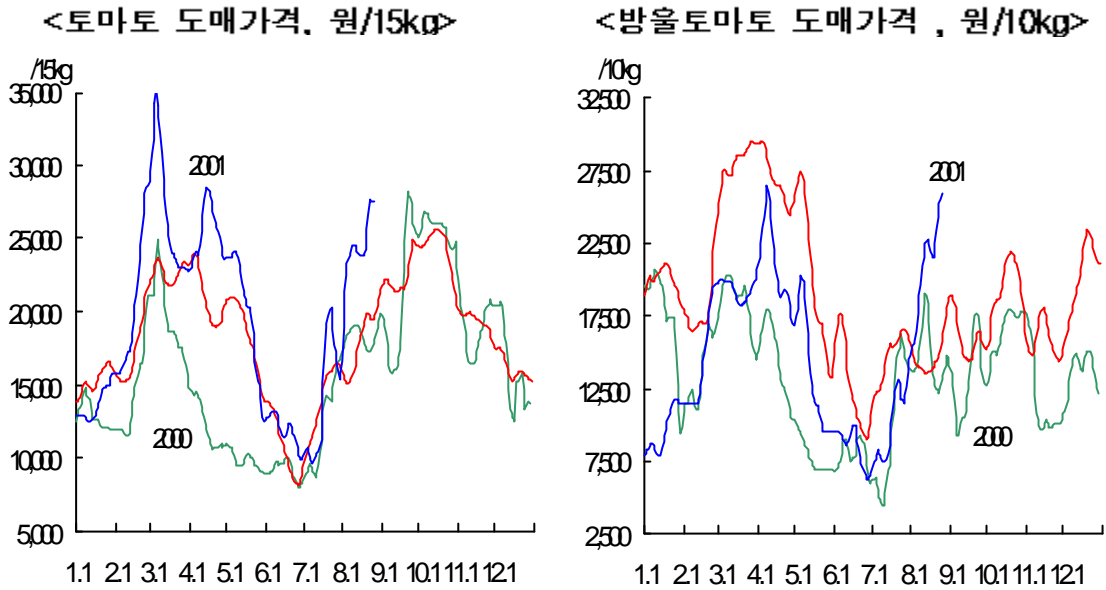
- 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단수는 높았지만, 출하면적이 줄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 적었고, 수박 등 대체과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참외가격은 지난해(상품 15kg당 1만 7천원)와 비슷한 수준임.
- 9월 참외 출하예정량도 지난해보다 3% 적고, 품질 또한 좋아 9월 가격은 지난해(상품 15kg당 1만 5천원)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 지난해대비 공급량 증가율 >

(단위 : %)

	출하(예정)면적	단 수	출 하 량
9월	-3.1	0.2	-2.9

라.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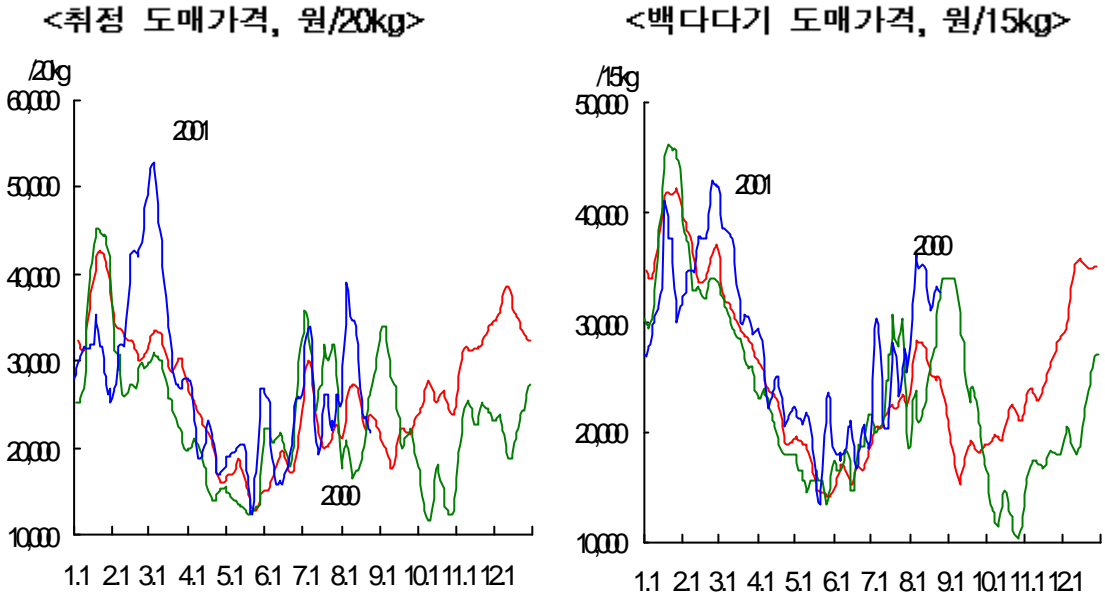
- 8월 토마토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높은 수준이고 방울토마토 가격도 지난해 동기보다 42% 높은 수준임.
- 9월 토마토 출하예정면적과 단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가격은 지난해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 방울토마토 출하예정면적은 지난해보다 1% 늘고 단수는 1%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지난해 9월 대비 공급량 증가율>

(단위: %)

	출하(예정)면적	단 수	출하량
토마토	0.5	0.8	1.3
방울토마토	0.6	-1.3	-0.7

마. 오이



- 8월 출하물량은 지난해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수준(취청 상품: 20,000원/20kg, 백다다기 상품: 25,000원/15kg)보다 30~40% 높은 수준임.
- 9월에는 출하예정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고, 단수도 지난해보다 높아 9월 가격은 평년이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됨.
- 8~10월 정식면적은 지난해 가격이 낮아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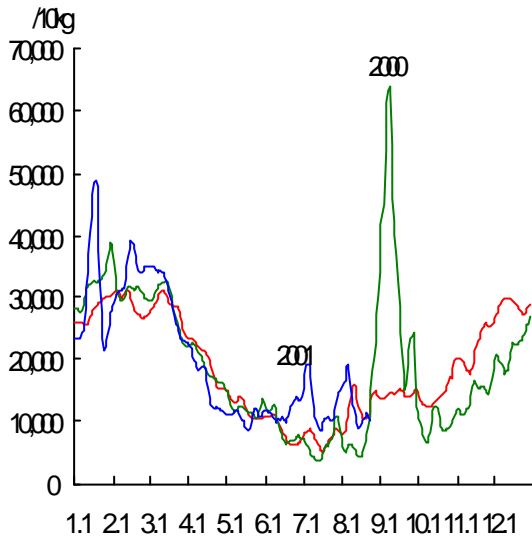
< 지난해대비 공급량 및 재배의향면적 증가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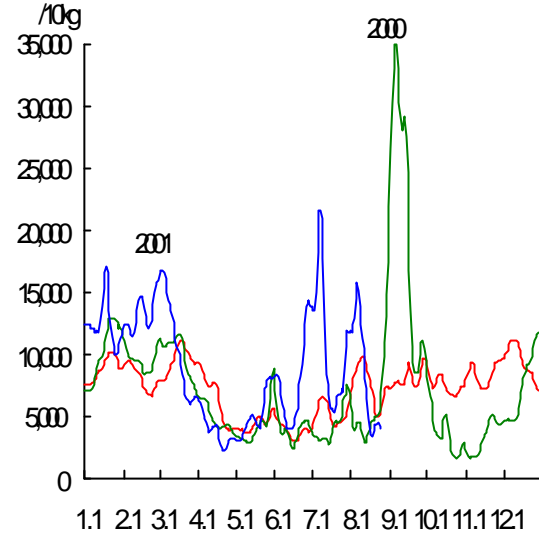
9월 예상출하량	8~10월 정식(의향)면적
1.3	△0.6

바.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원/10kg>



<쭈키니 도매가격, 원/10kg>



- 8월 출하물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 수준(애호박: 8,600원, 쭈키니: 7,900원)보다 50~70% 높은 수준임.
- 9~10월에는 출하 예정물량이 지난해보다 1~2%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9~10월 가격은 평년이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
- 8~10월 정식의향면적은 올해 호박시세가 좋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대비 공급량 및 재배의향면적 증가율 >

(단위 : %)

9~10월 예상출하량	8~10월 정식(의향)면적
2.0	1.0

11. 축산

가. 개황

- 6월 한육우 월간 인공수정율은 전년 동월에 비해 29% 높게 나타났으며, 7월 한육우 월간 암소도축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우사육번식 의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한우수요감소는 7월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고, 수입육 수요도 5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추석을 계기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
- 쇠고기 수요가 회복되면서 7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월에 비해 7% 증가, 쇠고기 수입은 전월에 비해 53%나 증가하였음.
- 6월 모돈수가 3개월 전보다 3.4% 증가하여 9월 돼지 사육두수는 6월보다 2% 증가한 856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됨. 9월부터는 출하두수가 증가하면서 산지가격은 하락할 전망
- 9월 계란공급은 증가하나 추석을 앞두고 계란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격은 평년수준(834원/특란10개)보다 높게 형성되고, 9월 육계가격은 닭고기 공급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나 냉동육 비축량이 평년보다 적어 평년수준(1,005원/생체kg)보다 높은 1,100~1,300원/kg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단위 : %

	1~7월 가격		8월 가격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¹⁾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²⁾
한우(큰수소)	6.1	14.9	29.3	29.4
한우(수송아지)	28.9	49.8	41.9	64.7
돼지	△5.8	△2.4	9.8	2.2
육계	15.8	11.4	18.3	17.5
계란	40.5	16.0	8.5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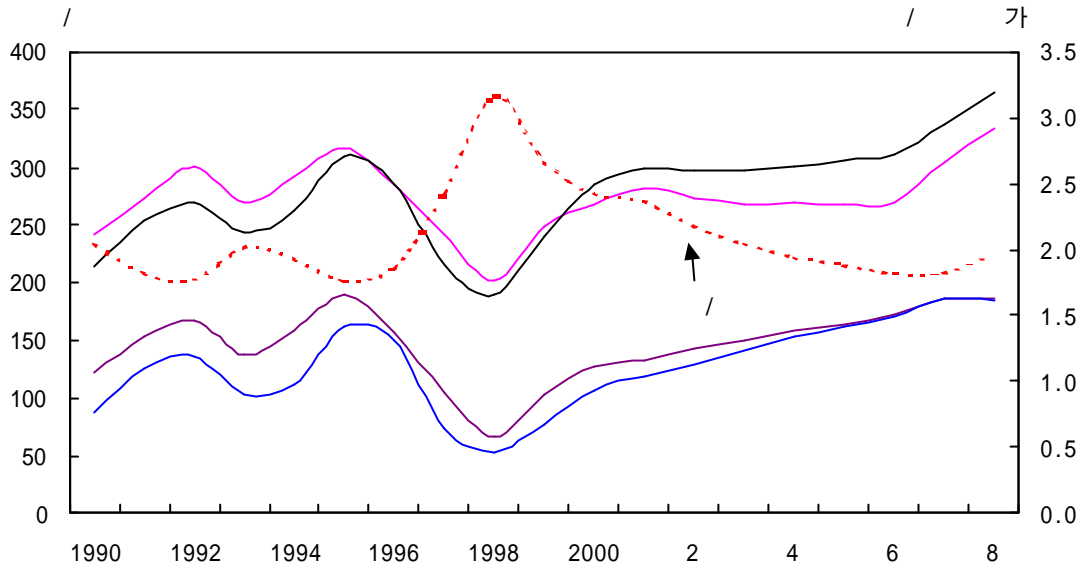
주 : 1.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8월 가격은 1~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나. 한육우

< 가격동향 >



주: 2001년 8월 가격은 1~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 한우 가격 등락율 >

단위 : %

	1~7월 가격		8월 하순가격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¹⁾	지난해동기대비	전월하순대비 ²⁾
한우(큰수소)	6.1	14.9	32.7	7.8
한우(큰암소)	10.8	30.5	27.9	6.4
한우(수송아지)	28.9	49.8	41.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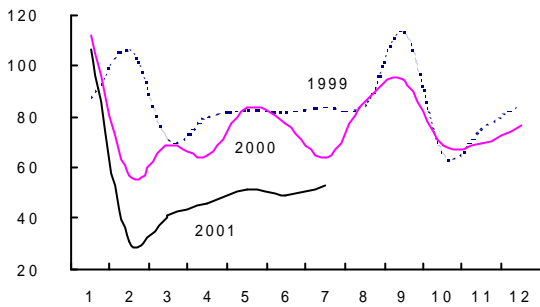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1996~2000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8월 하순가격은 21~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 국내산 쇠고기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도축 물량 부족으로 8월 하순 큰수소가격(500kg)은 3,43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7%, 지난달 동기대비 7.8%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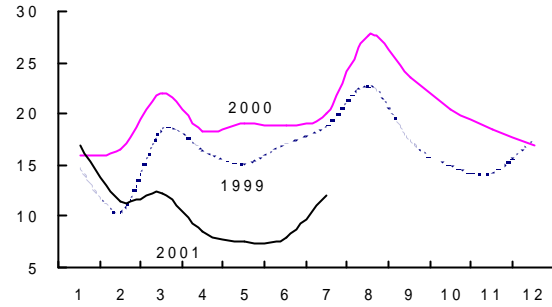
○ 7월 송아지가격이 급상승하자 농가들의 입식열기가 주춤하여 7월 하순 이후 송아지가격은 상승세가 멈추어 180만원대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음.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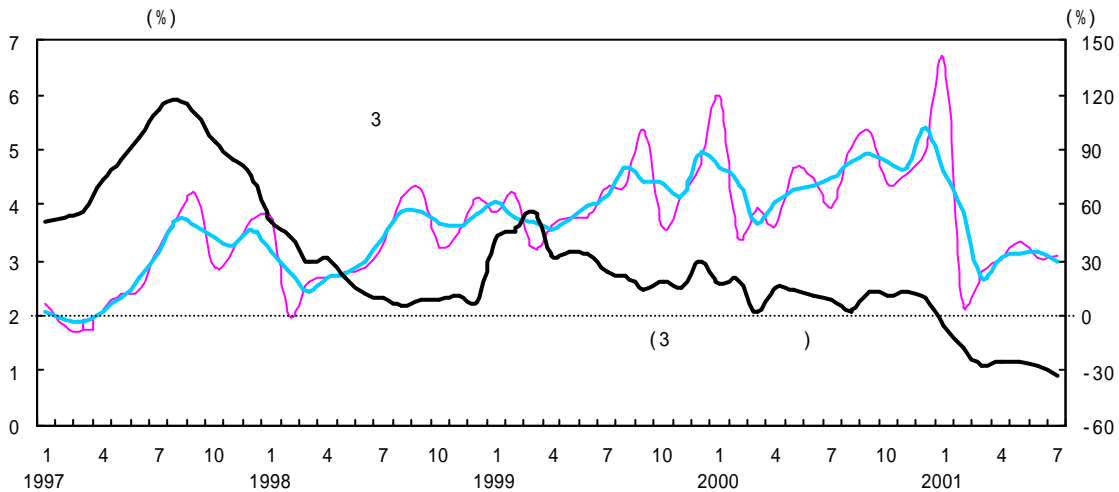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1년 7월은 잠정치).

- 광우병 영향으로 도축두수가 2월에는 급감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회복되어 7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월에 비해 7% 증가함. 쇠고기 수입은 5월까지 감소하였으나 7월에는 6월보다 53% 증가함.
-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입업자들이 수입육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여 수입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수입쇠고기 재고(LPMO)가 1월에 4만4천톤에서 8월현재 1만4천톤으로 감소하였음.

<한육우 큰암소 월간 도축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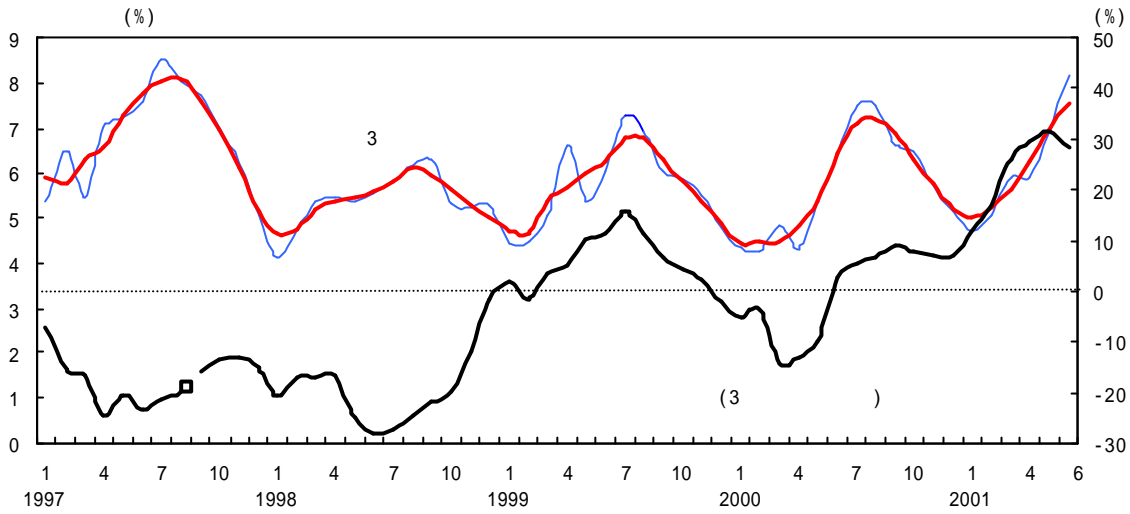


주: 월간도축율 = $\frac{\text{월별 도축두수}}{\text{월별 1세이상두수}}$ (7월은 추정치).

자료: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여 농경연에서 계산.

- 올 2월부터 한육우 암소도축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7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암소 사육의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큰암소두수는 올 3월을 저점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

<한육우 월간 인공수정율 변화추이>



주: 월간 인공수정율 = $\frac{\text{월별 인공수정두수}}{\text{월별 1세이상암소두수}}$

자료: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여 농경연에서 계산.

< 한육우 인공수정두수(12개월 누적) 증감율 >

단위 : 만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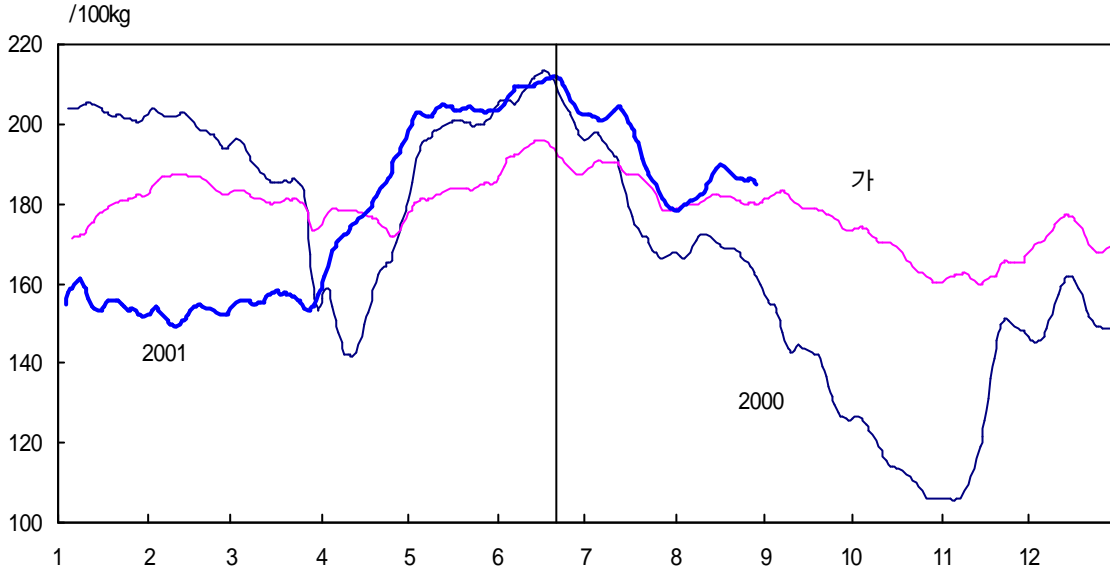
월	2000년				200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인공수정두수	61.4	60.7	59.7	59.0	58.5	58.2	58.0	58.4	58.8	59.1
전월대비	△1.5	△1.2	△1.6	△1.1	△1.0	△0.5	△0.3	0.8	0.5	0.6

자료: 농림부.

- 월간 인공수정율이 작년 5월 이후 전년 같은 달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올초부터 급격히 높아져 있으며, 6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나 높아 번식의향이 큰 쪽으로 상승하고 있음.
- 12개월 누적 인공수정두수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과 6월에도 지난달에 비해 각각 0.5%,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내년 2월경부터 송아지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다. 돼지

< 성돈 산지가격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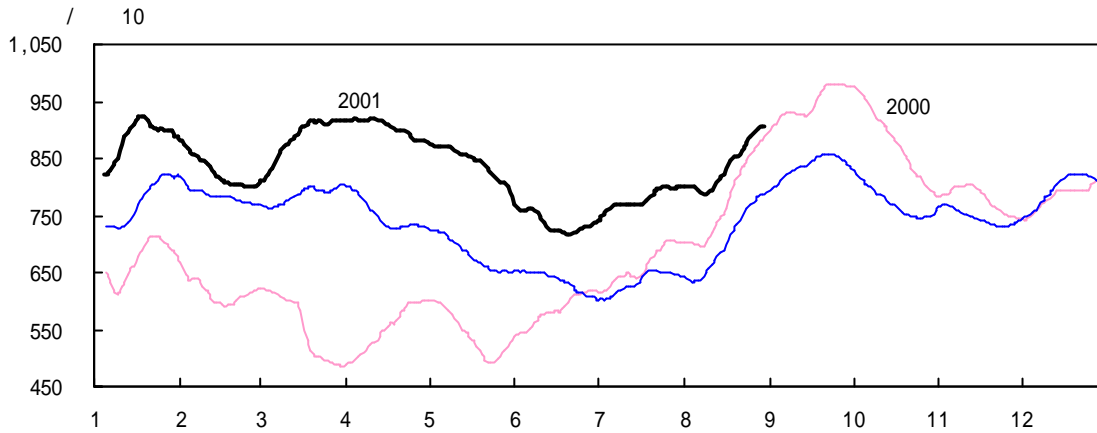


주: 5일이동평균가격.

- 성돈 산지가격이 6월 하순부터 하락하였으나, 8월 들어 일시 상승 후 하락세를 보여 8월 28일 현재 18만 5천원임. 그러나, 금년 5~8월 가격은 평년보다 6.7%, 작년보다 4.8% 높은 수준임.
- 5~8월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으나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높고 광우병 특수로, 돼지고기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올 7월에는 지난해보다 환율이 17% 상승하고 국제돈가도 4% 상승하여 수입돈육도매원가(삼겹살)는 지난해 7월보다 20% 상승함. 하반기에도 환율과 국제돈가 강세로 수입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3만 9천톤으로 전망됨.
- 올 9월 사육두수는 6월보다 2% 증가한 856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모돈수도 2~3% 증가할 듯. 9월 이후 출하두수 증가로 산지가격은 9월에 17만원대로 낮아지고 하락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라.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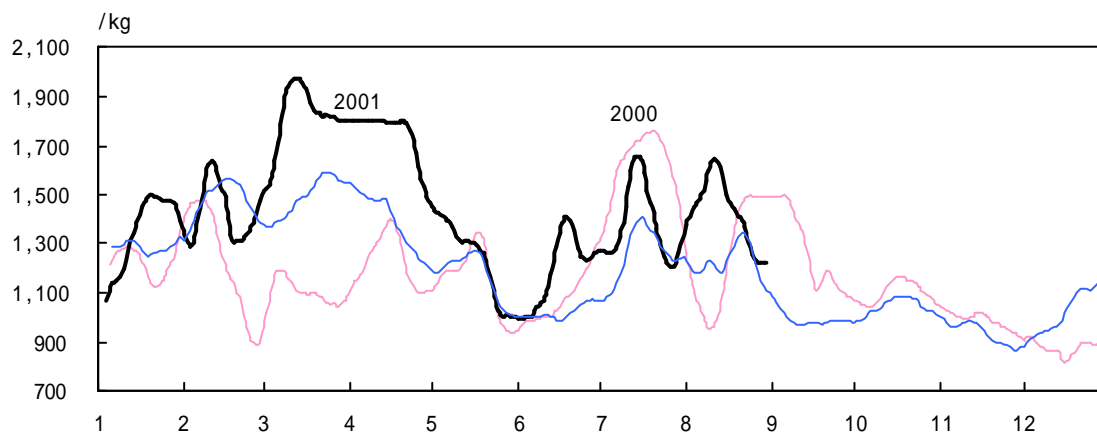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동향 >



주: 5일이동평균가격.

- 올 1~8월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16.3% 높은 수준 유지
- 계란가격이 높았으나 종계생산성이 낮아 산란실용계 입식이 늘어나지 못해 당분간 계란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전망

< 육계 산지가격동향 >



주: 5일이동평균가격.

- 8월 평균 산지가격은 무더위와 질병발생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높았음. 계절적으로 9월은 소비가 감소하는 시기이나 냉동육 비축량이 평년에 비해 적어 9월 평균산지가격은 평년 수준보다 높은 1,100~1,300원/kg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Ⅲ. 지역 언론 동향

<지방일간지 23종에 보도된 8월중 농업관련 주요 이슈>

□ 쌀산업 우려 목소리 높아

- 올해 들어 쌀 재고 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지역언론들은 8월21일 농협조합장들이 수확기 쌀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올해 추수이후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가마당 2만원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의 발표가 있자 쌀관련 특집을 게재하는 등 일제히 쌀 문제를 주요기사로 취급함.
- 충남지역에서는 올해 추수이후 쌀값이 가마당 전년보다 2만원 하락할 경우 이 지역 농가소득이 무려 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쌀 산업의 위기감을 강조했고, 경인일보 등 8개 신문은 8월23일을 전후한 사실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매량을 확대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방안의 검토 등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각 지역 농협은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올해산 산물벼 수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고, 농민단체와 농민들도 정부 보관쌀의 시장방출 중단과 추곡수매물량 전량 시장격리 조치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을 포함한 장기적인 쌀 산업 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함.

□ 농업정책자금 이용 저조

- 농업경영활성화 자금과 유통활성화 자금 등 농업관련 정책자금 이용이 5%선으로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도 복잡하여 농업정책자금 이용저조.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6백70억원이 집행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7월말 현재 1백35억원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산촌 소득개발사업 융자금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등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대출이율을 2~3%로 낮추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함.

□ 고추 역병 피해 확산

- 전국적으로 고추 주산지에서 역병과 탄저병이 번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역병으로 1천5백ha가 피해를 입어 농가소득이 3백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경북과 충북지역에서도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민들은 원예작물도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한우·돼지가격 양극화

-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대책으로 소값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북 상주에서는 7월말 5백kg 암소 한 마리에 3백70만원에 거래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송아지값도 2백만원대까지 육박하면서 위축됐던 사육심리가 회복,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돼지값은 소비 감소와 과잉출하로 인해 최근 한달새 1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반기 돼지값 폭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함.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승계 안돼 농가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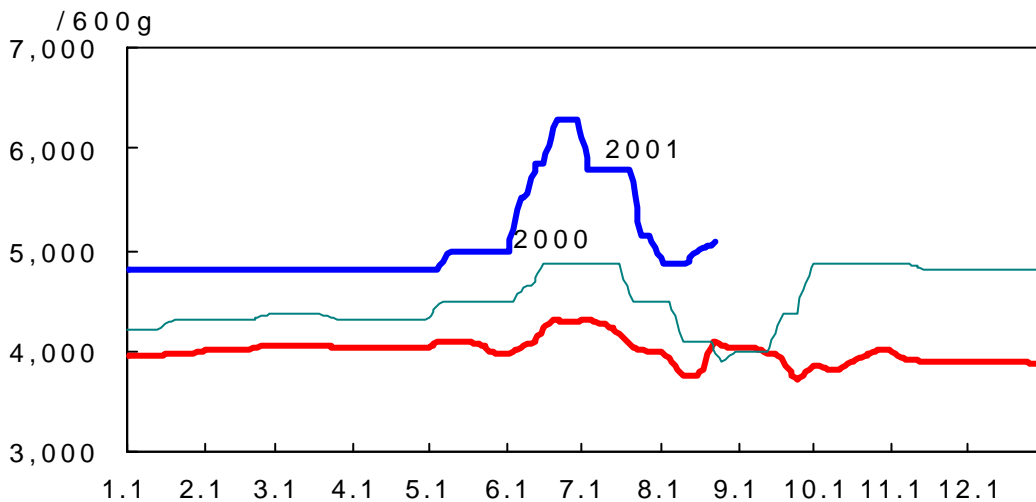
- 전남과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송아지를 판매할 때 가입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매매 당해연도에는 가입도 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만 재가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매달 수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IV. 이 달의 집중분석: 고추

1. 가격동향

- 6월 20일에 화건 상품 600g당 6,300원으로 높았던 고추 도매가격은 7월 에 했고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8월 상순에 4,850원으로 하락하다가, 8월 15일에 5,000원, 8월 20일에 5,050원, 8월 28일에 5,250으로 상승하였음.
- 8월 평균도매가격은 4,972원(중품 4,657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25% 높고, 작 년 동기보다는 19% 높은 수준임. 이는 금년산 고추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 다 최근 역병이 심해 단수가 낮아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임.

<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년 8월~2001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고추의 연산기준 600g당 상품 도매가격은 1997년에 2,800원 수준으로 낮았 으나, 1998년 이후 4,500원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고추 연도별 도매가격(연산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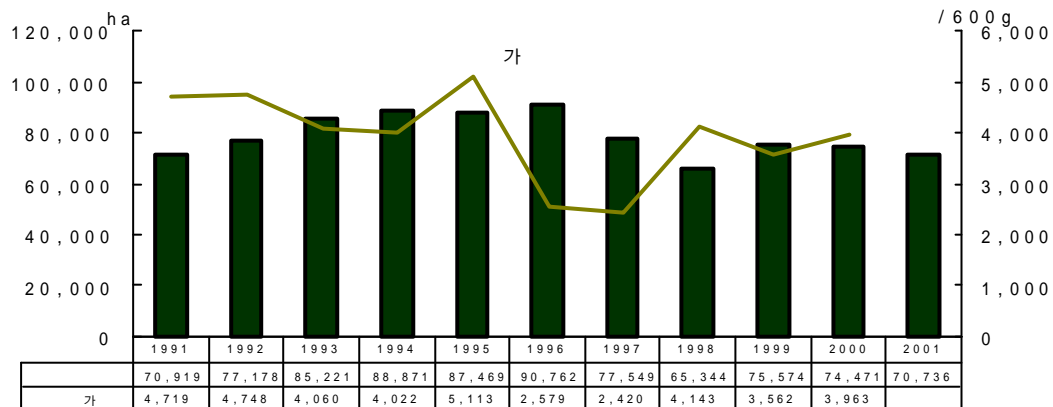
단위 : 원/600g				
1996	1997	1998	1999	2000
2,800	2,767	4,895	4,271	4,878

2. 생산 및 수급동향

□ 생산동향

- 고추 재배면적은 1996년에 9만 762ha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되어 2000년에는 7만 4,471ha, 2001년에는 70,736ha로 연평균 5% 감소
 - 2000년산 고추 근당 연평균도매가격은 4,880원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고추재배농가의 고령화와 연작에 의한 병해충 피해로 인해 전작하는 농가가 많아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고추 재배면적 및 가격 동향 >



주 : 연평균 도매가격은 가락동 도매가격 수준으로 8월에서 익년 7월까지 월별 반입량으로 가중 평균한 것이고, 1995년 불변가격임.

- 최근 5년간 재배면적의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호남지역은 7%, 영남은 5%, 충청은 3% 내외 감소했고, 비주산지인 제주와 시지역은 증가하였음.

< 고추 도별 재배면적의 연평균 감소율(1996~2001년) >

단위 : %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지역	전체
연평균 감소율	-0.7	-5.5	-4.3	-2.2	-6.5	-7.3	-5.6	-5.1	14.8	3.1	-4.9

- 재배방법별로는 단수가 멀칭재배보다 약 30% 이상 높은 터널재배면적비율이 1996년에 10.3%에서 2000년에는 12.3%로 증가하였음. 2001년 터널재배면적은 12.3%로 전년과 같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이는 멀칭재배에 비해 투하노동시간이 많고, 병충해도 많기 때문임.

< 고추 재배방법별 재배면적 변화 >

단위 : ha,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배면적	90,762	77,549	65,344	75,574	74,471	70,736
터널	10.3	11.0	11.0	11.4	12.3	12.3
멀칭	89.7	89.0	89.0	88.6	87.7	87.7

- 단수는 재배기술에 따라 계단식 증가 현상이 있음. 1988~1995년까지의 10a 당 평균 단수는 212kg이고, 1996~1998년은 240kg, 최근 1999~2001년에는 266kg으로 증가했음.
- 이는 멀칭에서 터널, 터널에서 2중 터널, 만상 이후에도 수확이 가능한 비가림 재배시설 등의 개발에 의한 것이고, 품종은 소과종에서 대과종 개발이 주 원인이었음.
- 품종은 '90년대에 대과종으로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은 바이러스, 탄저병, 역병 등에 강한 내병성 품종, 색과 모양, 맛이 좋은 품종으로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단수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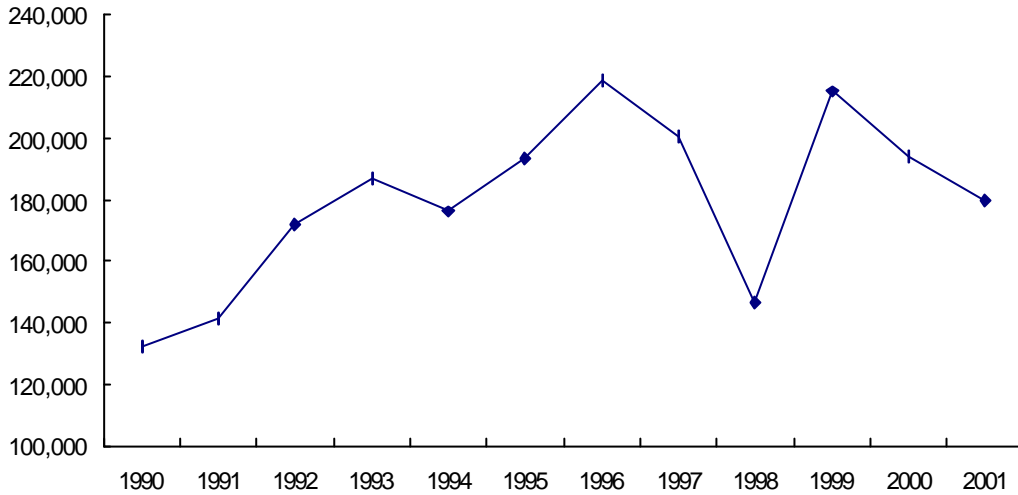
< 고추 재배방법별 단수 비교 >

단위 : ha, %

	1988~95	1996~1998	1999~2001
단수	212	240	266
터널	-	232	255
멀칭	-	315	349

- 생산량은 1990~1996년까지는 재배면적의 증가와 단수의 증가로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1997~1999년까지는 높은 수준에서 정체수준이었으나, 이후 2000년부터는 재배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고추 연도별 생산량 변화 >



□ 소비동향

- 소비비중이 큰 김치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고추의 소비도 감소하고 있음. 1인당 연간 김치소비량은 '80년에는 50kg 이었으나, '95년에는 36kg, '99년에는 28kg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앞으로 감소는 하지만 감소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연간 1인당 고추소비량은 1995년에 4.4kg에서 2000년에는 4.3kg, 2001년에는 4.2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고추의 소비패턴도 바뀌어 가고 있음.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제조해 왔던 고추장과 김치 등 가정용 고추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식품업체의 가공용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수입산 고추의 수요는 제한적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중국의 익도산 고추는 과피의 명도와 색도, 고춧가루의 명도와 색도가 국산 고추에 비해 좋아 식품업체의 가공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맛과 향이 국내산과 달라 국내산 고추와 완전대체되지 않고 혼합되어 사용하고 있음.

- 중국 수입산 고추로만 김치를 담갔을 때, 당도가 낮아 설탕을 첨가해야 하므로 김치의 맛이 떨어져 국산과 중국산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3. 생산 및 수급전망

□ 생산전망

-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평년보다 7% 감소한 70,736ha으로 확정되었고, 재배방법별로는 멀칭재배가 6%, 터널재배가 1% 감소하였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월 예상수확량 조사결과, 10a당 예상 수확량은 작년보다 2% 감소한 254kg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단수는 7월 장마의 영향으로 역병이 심하여 후기 작황이 나쁘고, 충북부지방은 8월 기상호조로 탄저병 발생이 적어, 후기 작황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9월의 태풍등 기상여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 재배면적과 추정단수를 적용한 올해 고추 생산량은 18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7%, 평년 생산량보다는 약 12% 적은 수준임.

< 고추 추정 생산량 >

추정면적 (ha)	추정단수 (kg/10a)	추정생산량 (천톤)	증가율(%)	
			작년 대비	평년 대비
70,736	254	180	-6.8	-11.6

□ 중국 익도산 고추의 생산 및 수출가격

- 한국에 수출 가능한 중국의 익도산 고추의 공급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재고량 감소, 올해 생산될 고추 재배면적 감소, 단수 감소
- 금년 8월말 현재 중국 산동성의 익도산 고추 상품의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30% 정도 적은 2,000톤으로 추정됨.
- 올해 중국의 익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작년산 농가판매가격이 낮았고, 연작피해가 나타나 산동성 주산지인 평도, 교주, 안구, 즉묵 등의 면적이 작년보다 10% 감소하였으며, 대체작물로 옥수수, 땅콩, 콩 등을 재배함.
- 고추 주산지인 산동성의 작황은, 초기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여 8월말 현재 착과수가 작년 동기에 비하여 4~5개 적은 12~13개이고 장마로 병이 많이 발생하여 작년보다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익도산 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30% 내외 감소한 3만톤으로 추정되어 수출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금년산 고추의 수확시기는 10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며, 건조 후 출하는 11월 하순에서 시작되고, 성출하기는 내년 1~2월임.
- 중국산지 가격은 높아지고 있음. 금년 8월 현재 7월보다 16% 높은 톤당 1,1000~11,500원(1,340달러)임. 민간수입원가는 6,500~6,600원, 도매원가는 6,700~6,800원으로 7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한국의 고추 수확량 감소에 따라 한국의 고추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임.

□ 국내 수급 및 가격 전망

○ 시나리오 구성은 MMA 물량의 도입시기 및 도입량에 따라 국내 도매가격 변화를 보기 위함.

- 시나리오 I: 생산량은 18만톤, 2001년 MMA 물량 중 7월까지 수입된 2.3천톤을 제외한 3.9천톤, 2002년 MMA물량 중 50%인 3.3천톤, 민간수입 추정량 3.3천톤을 더하면 총공급량은 19만 5백톤으로 추정

- 시나리오 II: 생산량은 18만톤, 2001년 MMA 물량 중 7월까지 수입된 2.3천톤을 제외한 3.9천톤, 2002년 MMA물량 전체 6.6천톤, 민간수입 추정량 3.3천톤을 더하면 총공급량은 19만 3,800톤으로 추정

○ 시나리오 I은 600g당 상품 연평균 도매가격은 5,300원 내외로 추정되어 작년보다 9% 평년보다 33% 높은 수준임. 시나리오 II는 5,100원 내외로 추정되어 작년보다 5% 평년보다 28% 높은 수준임.

< 고추 공급량 시나리오별 가격 추정 >

	추정생산량 (천톤)	MMA(천톤)		민간수입량 (천톤)	총공급량 (천톤)	연평균가격 (원/600g)
		2001.8~12	2001.8 ~2002.7			
시나리오 I	180	3.9	3.3	3.3	190.5	5,300
시나리오 II	180	3.9	6.6	3.3	193.8	5,100

4. 정책 제언

- 올해산 국내 고추 생산량이 적고, 중국산 2000년산 재고량과 2001년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 고추가격은 작년과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산 고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1년 MMA 물량확보와 2002년 MMA 물량을 2002년 7월 이전에 전부 도입하여 국내수급안정 및 민간수입을 억제
-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농가가 재배면적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고추의 화건과 양건의 품질차이로 가격차가 크므로 건조기술을 개발하여 화건도 양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단수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므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탄저병, 역병에 강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맛과 모양, 색도가 좋은 품종개발 필요.
- 소득이 높은데도 수확기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확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 개발 필요.